



바른답·알찬풀이

갈래 특강

시

12~14쪽

- 1 운율, 압축 2 주제 3 운율 4 심상 5 ① 6 시각적 심상 7 청각적 심상 8 후각적 심상 9 직유법 10 ○ 11 ○ 12 '나'

작품에서 확인하기 ① 반복 ② 시각적, 미각적, 후각적 ③ 알

5 ①

이 시에 행동이나 소리를 흉내 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화자는 '강변 살자'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강변에 살고 싶은 마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시는 운율, 즉 음악성이 있는 문학이므로 노래로 만들 수 있다.
- ④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문장이 반복되어 리듬감이 나타난다.
- ⑤ '엄마야V누나야V강변 살자. / 뜰에는V반짝이는V금모래 빛. / 뒷문V밖에는V갈잎의 노래 / 엄마야V누나야V강변 살자.'와 같이 끊어 읽을 수 있다. 동일한 끊어 읽기가 반복되면 운율이 생긴다.

6 시각적 심상

'푸른, 하얀'이라는 색채는 눈을 통해 보게 되는 빛깔이다.

7 청각적 심상

'삐걱삐걱'은 새 울음소리이므로 귀를 통해 느끼는 감각이다.

8 후각적 심상

'진달래 향기', '보리 냄새'는 코를 통해 느끼는 감각이다.

11 ○

'엄마야, 누나야'라고 부르는 말에서 시의 화자가 남자아이, 즉 소년임을 알 수 있다.

소설

15~17쪽

- 1 ㉠ 2 ㉡ 3 서술자 4 ○ 5 × 6 위치 7 전지적 작가 시점 8 1인칭 주인공 시점 9 × 10 전개 11 위기 12 ②

작품에서 확인하기 ① 경환 ② 등장하지 않는 ③ 전지적 ④ 배우 ⑤ 외적 ⑥ 아버지 ⑦ ㉠ - 절정, ㉡ - 결말

4 ○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다.

5 ×

소설 <소나기>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7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주인공과 주변 인물의 말과 행동, 심리 변화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이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8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인 '나'가 전달하므로 1인칭 시점이고, 자신이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생각, 즉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므로 주인공 시점이 된다.

9 ×

인물이 외부의 다른 대상인 다른 사람, 사회 제도, 자연, 운명 등과 일으키는 갈등은 외적 갈등이다.

희곡·시나리오

18쪽

- 1 ① 2 × 3 × 4 해설 5 대화

1 ①

시나리오의 공간의 제약이 적고, 촬영 및 편집 기법이 발달하여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적지만, 희곡은 공연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의 수에 제한이 있다.

2 ×

희곡과 시나리오의 구성 단계는 ‘발단 - 전개 - 절정 - 하강 - 대단원’으로 전개된다.

수필

19쪽

1 수필 2 ⊖ 3 ⊕ 4 ⊕ 5 ⊖ 6 자서전

5 ⊖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쓴 글이기 때문에 어떤 글감을 선택하는지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만, 문장을 어떤 길이로 쓰는지 어떤 표현 방법을 많이 쓰는지 등에 따라 서로 개성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을 개성이 드러나는 글로 본다.

설명문

20쪽

1 정보 2 ⑤ 3 ○ 4 × 5 정의 6 대조 7 예시

2 ⑤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은 글의 처음 부분에서 해야 한다. 독자들이 글의 앞부분을 읽어 보고 관심이 생겨야 계속 글을 읽어 나가기 때문이다.

4 ×

설명문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짜임새 있게 구성되는 것은 곧 내용이 체계 있게 전개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체계성’에 대한 설명이다. ‘객관성’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지식을 담는 특징을 말한다.

논설문

21쪽

1 논설문 2 서론, 본론 3 ○ 4 × 5 ⑤

2 서론, 본론

설명문과 논설문은 보통 3단계로 내용을 전개하는데 시작하는 부분, 본격적으로 내용을 쓰는 부분,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이를 설명문에서는 ‘처음 - 중간 - 끝’이라고 부르고, 논설문에서는 ‘서론 - 본론 - 결론’이라고 부른다.

5 ⑤

논설문은 글쓴이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독자들을 설득하는 글이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주장을 펼쳐야 한다. 객관적인 정보를 잘 전달하였는지 판단해야 할 글은 설명문이다.

1. 마음을 표현하는 법

(1) 운율과 비유

확인 문제 29쪽

1 ③ 2 ① 3 ② 4 ②

1 ③
시 전체적으로 아가에게 말을 건네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아가가 민들레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 오답 해설**
- ① 6연에 '내년 봄에는'이라는 구절을 보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 ② 1연에서 민들레는 자신의 모습을 '털방울'에 빗대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5연에서 '힘차고 따뜻하게' 등의 구절로 숨결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후후후'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아가가 민들레를 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후', '~지' 등의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이 느껴진다.
 - 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2 ①
털방울, 민들레에게 입김을 부는 아가의 모습, 봄바람 같은 아가의 숨결, 아가의 성장을 바라보는 민들레의 정겹고 따뜻한 시선 등에서 따뜻하고, 포근하며 정겹고 부드러운 시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3 ②
1연의 '지난겨울 너의 모자 끝에 달려 있던 털방울 같지', 3연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낙하산 되어 날아가기' 등에서 민들레가 '털방울', '낙하산' 등에 빗대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②
'작은 입술 뽀뽀하듯 내밀고'에는 연결하는 말 '~듯'을 사용하여 '입김을 불기 위해 내민 입술'(원관념)과 '뽀뽀하는 입술'(보조 관념)을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번

개처럼 빠른 기차'에도 '~처럼'으로 '기차'(원관념)와 '번개'(보조 관념)를 연결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오답 해설**
- ① 연결하는 말 없이 '~은/는 ~(이)다.'의 형식으로 '내 사랑'(원관념)을 '아지랑이'(보조 관념)에 비유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③ '산'을 사람에게 빗대어 '웃는다'라고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④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빗방울'을 '즐거운 노랫소리'라고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⑤ 연결하는 말 없이 '책장'을 '푸른 보리밭'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활동 응용 문제 - 감상 탐구 31~33쪽

1 ④ 2 ⑤ 3 ④ 4 ⑤ 5 ③

1 ④
이 시에서는 '후후', '후후후'(시어, 음성 상징어의 반복), '~지', 7연의 문장 구조 반복 등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⑤
운율은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시를 읽는 재미를 준다. 또한 반복적인 표현으로 시에 통일감과 규칙성을 부여하고,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시는 함축성, 운율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갈래이므로 시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운율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3 ④
'봄바람 같은 너의 숨결'에는 '같은'이라는 연결어(이어 주는 말)를 사용하여 '숨결'(원관념)을 '봄바람'(보조 관념)에 빗댄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꽃처럼 예쁜 너' 또한 연결어 '~처럼'을 사용하여 '너'(원관념)를 '꽃'(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은 ‘너’가 아니라 너의 ‘숨결’이다.
- ② 빗대어 표현한 대상(보조 관념)은 ‘봄바람’이다.
- ③ ‘따뜻하다, 포근하다.’ 등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숨결’을 ‘봄바람’에 비유하였다.
- ⑤ ‘~은/는 ~(이)다.’의 형식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내 마음은 호수’ 같은 은유법이다.

4 ⑤

<보기>에는 ‘민들레’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에는 ‘햇발’이 돌담에 ‘속삭인다’라고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연결어 없이 ‘내 마음’(원관념)을 ‘호수’(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③ 연결어 없이 ‘이것’(원관념)을 ‘소리 없는 아우성’(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아우성’이란 여럿이 함께 악을 쓰며 부르짖는 소리를 뜻하는데, 이것이 ‘소리가 없다’라고 표현한 점에서 겉으로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진실을 강조하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④ 연결어 ‘~처럼’을 사용하여 ‘나’(원관념)를 ‘찬밥’(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5 ③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대상이 주는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비유 표현을 잘 사용하면 재미있고 참신한 느낌을 주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시의 3연에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민들레를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낙하산’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며, ‘낙하산처럼 날아가고 싶은 아가의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④ 2연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민들레 흩날리는 아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 ⑤ 의인법을 사용하여 민들레의 마음을 더욱 친근하게 표현하였다.

- 1 팝콘, 봄, 은유법 2 ④ 3 ① 4 거북이 5 ⑤
- 6 ⑤

1 팝콘, 봄, 은유법

‘팝콘 같은 꽃잎’에서 ‘같은’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꽃잎’(원관념)을 ‘팝콘’(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며, ‘그대가 나의 봄이죠’에서 연결어 없이 ‘그대’(원관념)를 ‘봄’(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2 ④

‘의성어’란 ‘후후’처럼 소리를 흉내 낸 말을 뜻한다. (나)에는 ‘봄’과 ‘꽃잎’을 의인화하여 꽃잎이 흩날리는 봄꽃 축제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3 ①

‘질은 회색빛 구름’에는 비유가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② 연결어 ‘같이’를 사용하여 ‘목소리’(원관념)를 ‘보석’(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③ 연결어 ‘~처럼’을 사용하여 ‘영희’(원관념)를 ‘원숭이’(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④ 연결어 ‘~처럼’을 사용하여 ‘꽃’(원관념)을 ‘누님’(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⑤ 연결어 ‘같은’을 사용하여 ‘강아지’(원관념)를 ‘솜사탕’(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4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우화의 내용을 생각하면, ‘나’(원관념)와 ‘느리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성격’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보조 관념으로는 ‘거북이’가 알맞다.

5 ⑤

<보기>는 연결어 없이 ‘(내) 다리’(원관념)를 ‘진동 벨’(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나가 다리를 떠는 모습을 진동 벨이 울리는 모습에 비유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보조 관념은 ‘진동 벨’이다.
- ② ‘진동 벨’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은 '내 다리'이다.
- ④ '내 다리'와 '진동 벨'의 공통점이 잘 드러난다.

6 ⑤

비유적 표현은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그것과 비슷한 점이 있는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표현하려는 대상의 특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유적 표현을 평가할 때에는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는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지, 표현이 참신한지 등을 살피는 것이 좋다.

플러스 어휘 문제 39쪽

1 (1) 숨결 (2) 열매 2 ③

1 (1) 숨결 (2) 열매

- (1) '살결'은 '살갓의 결.'을 뜻하는 단어이다.
- (2)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열리는 것은 '열매'이다.

2 ③

'생생하다'는 '힘이나 기운이 왕성하다.', '(야채, 과일, 생선 따위가) 시들거나 상하지 않고 생기가 있다.', '(기억이나 현상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또렷하고 분명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40~41쪽

학습제재 정리 **목**
아가, 의인화, 운율, 비유법, 내년, 두 번

학습내용 핵심 **목**
1 ④ 2 ④ 3 ⑤

1 ④

<보기>는 '후후', '후후후'라는 음성 상징어와 시어의 반복, '~지'라는 종결 어미의 반복 등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모든 행의 글자 수도 다르고, 끊어 읽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읽기가 어렵다.
- ② <보기>에서 규칙적인 3음보의 운율은 느껴지지 않는다.

- ③ <보기>에서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보기>에서 행의 길이는 불규칙하게 길어지거나 짧아진다.

2 ④

㉠은 원관념인 '민들레'를 보조 관념인 '털방울'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며 '~갈지'라는 말을 활용하여 직유법으로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② ㉡에서는 시적 화자인 민들레가 사람인 것처럼 아가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⑤ ㉢은 의인법, ㉣은 직유법을 활용한 것으로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재미있고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다.

3 ⑤

보조 관념은 원관념의 특성을 읽는 이에게 인상 깊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보조 관념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익숙한 대상인지가 아니라, 원관념과 비슷한 점이 있으며, 표현하려는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42~43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⑤ 05 ① 06 ④
07 ⑤ 08 아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난다.
09 ② 10 봄바람, 두 대상은 따뜻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11 ③

01 ②

시는 함축적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대상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의 특징에 해당한다.

02 ①

민들레는 아가에게 익숙한 대상인 '털방울'에 자신을 빗대어 소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2연에서는 '음성 상징어'인 '후후후'의 사용으로 밝고 명랑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등은 느껴지지만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 ③ 3연에서는 봄바람이 아니라 '봄바람 같은 아가의 숨결'에 민들레가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④ 4연에서 민들레가 내년 봄에 아가를 다시 만나러 올 것을 약속하고 있다.

⑤ 6, 7연에서는 아가의 성장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들레의 태도가 나타난다. ‘연민’이란 ‘불쌍하고 가엾게 여김’을 뜻하는 단어이다.

03 ⑤

‘올해는 후후후 / 내년엔 후후’에서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적 화자인 민들레가 사람처럼 아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후후후/후후’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이 시에서 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마음이 반대가 되도록 표현하는 반어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⑤

3연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낙하산 되어 날아가지’에서 ‘나(민들레)’를 ‘낙하산’에 빗대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은 ‘민들레’이며, 빗대어 표현한 대상(보조 관념)은 ‘낙하산’이다.

오답 해설

② 1연의 ‘지난겨울 너의 모자 끝에 / 달려 있던 털방울 같지’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이 ‘민들레’이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 ‘털방울’임을 알 수 있다.

③ 2연의 ‘작은 입술 뽀뽀하듯 내밀고’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이 ‘내밀고 있는 입술’이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 ‘뽀뽀하는 입술’임을 알 수 있다.

④ 3연의 ‘봄바람 같은 너의 숨결’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은 ‘숨결’이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봄바람’임을 알 수 있다. ‘후후후’는 아가가 입김을 부는 소리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이다.

05 ①

⑦은 ‘~은/는 ~(이)다.’의 형식을 활용하여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다. 이때 원관념은 ‘나’(민들레)이고, 보조 관념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낙하산’이다. ‘현혈은 구명조끼입니다.’라는 문장도 ‘~처럼, ~듯이, ~같이, ~인 양’ 등의 연결어 없이, ‘현혈’이라는 원관념을 ‘구명조끼’라는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라는 문장에서, ‘칼’은 사물인 ‘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칼로 대표되는 ‘무력, 폭력’ 등을 의미한다. ‘펜’도 마찬가지로 사물인 ‘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펜’으로 대표되는 ‘지식, 사상’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물의 부분이나 특성으로 전체를 대신 비유하는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처럼’이라는 연결어로 ‘밤양갱’(원관념)을 ‘설탕’(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봄이 노래한다, 꽃잎이 손짓한다’라는 의미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같이’라는 연결어로 ‘부모의 사랑’(원관념)을 ‘하늘’(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06 ④

7연의 ㉠은 올해는 아가가 ‘후후후’ 세 번 불어야 자신이 날아가지만 내년에는 ‘후후’ 두 번만 불어도 날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즉, 내년에는 올해보다 아가의 숨결이 더 세지고 자라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로, 올해(현재)와 내년(미래)의 대비가 드러난다. 또한 이것은 시적 화자인 ‘민들레’가 시적 대상의 성장을 예측한 것이며, 아직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후후후’, ‘후후’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② 7연에서 ‘~는 ~’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③ ‘후후후’는 낭송하는 사람이 ‘후’의 길이와 속도를 조절하며 리듬감을 만들고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⑤ 시적 화자인 민들레가 시적 대상인 아가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정겹고 따스한 시선이 느껴진다.

07 ⑤

[A]에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보기>에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유적 표현이 잘 사용된 [A]가 <보기>에 비해 더욱 감각적이며 신선한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비유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유적 표현이 없는 <보기>가 [A]보다 직설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도 음성 상징어인 ‘후후후’가 사용되어 리듬감이

나타난다.

③ [A]에도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나타난다.

④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보기>가 아니라 [A]이다.

08 서술형 아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난다.

이 시는 민들레를 의인화하여, 봄철 민들레 흙씨를 부는 아가의 모습을 정겹고 따스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내년엔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하며 내년 봄에는 아가가 두 번만 불어도 자신이 날아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에서, 아가가 잘 자라서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민들레의 마음이 느껴진다.

평가 기준	배점
민들레의 마음을 알맞게 파악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
아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민들레의 마음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

09 ②

이 시에서는 ‘후후’, ‘후후후’, <보기>에서는 ‘가자’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시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10 서술형 봄바람, 두 대상은 따뜻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3연의 ‘봄바람 같은 너의 숨결’에서 아가의 ‘숨결’을 ‘봄바람’에 빗대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대상의 공통점은 ‘따뜻하다’, ‘포근하다’ 등이 있다. 따라서 ‘따뜻하다’ 대신에 이와 비슷한 ‘포근하다’, ‘따스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도 정답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아가의 ‘숨결’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잘 찾고,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
아가의 ‘숨결’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 또는 두 대상의 공통점 중 일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아가의 ‘숨결’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과 두 대상의 공통점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11 ③

<보기>에는 ‘바람’을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이 없다. 따라서 바람을 의인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그대가 나의 봄이죠.’에서 ‘그대’를 ‘봄’에 빗대어 ‘그대’가 나에게 갖는 의미와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② ‘따사로운 봄빛에 사랑이 녹아요. / 살랑대는 바람에 사랑이 불어요.’에서 ‘~에 사랑이 ~요.’라는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팝콘 같은 꽃잎’에서 ‘꽃잎’의 모양을 ‘팝콘’에 빗대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⑤ ‘그대만 그대만 그대만’에서 ‘그대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그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상징

확인문제

48~57쪽

1 ④ 2 ① 3 조약돌 4 ⑤ 5 ④, ⑤ 6 ③
 7 ③ 8 ① 9 ③ 10 ④ 11 ④ 12 대추 (한 줌)
 13 ⑤ 14 ② 15 ④

1 ④

이 글에서 소년은 소녀에게 비켜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다. 소녀는 그런 소년에게 “이 바보.”라는 말과 함께 조약돌을 던진다. 이런 내용에서 소녀가 소년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2 ①

소년은 소녀가 보이지 않자 안도하는 한편 소녀를 계속 궁금해하고 그리워한다. 그리고 징검다리에 앉아 물을 움키는 행동을 소녀에게 들켰을 때는 부끄러워한다. 미안한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3 조약돌

소년은 소녀가 자신에게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다가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는다. 이런 행동에서 소년도 소녀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소년은 소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조약돌을 주무르는데, 그것이 버릇이 될 만큼 소녀를 자주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다.

4 ⑤

‘여태 큰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성스럽게 건넌다.’라는 부분을 보면, 소년은 평소에 징검다리를 매우 손쉽게 건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년은 징검다리를 건너는 일이 익숙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소녀 앞에서 또 실수를 할까 봐 조심스럽게 건넌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에서 소년이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소녀는 소녀에게 조개 이름을 물으며 먼저 말을 건넸다.
- ③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에서 소년이 원래 해야 하는 집안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갈림길에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소년은 위로 가야 집이 나온다고 했다.

5 ④, ⑤

⑦은 소녀가 앞서 했던 것보다 더 격하게 허수아비 줄을 잡고 흔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녀의 즐거움 감정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6 ③

도랑은 소년과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건너야 하는 곳이다. 이후 소나기로 인해 도랑의 물이 불어나면서 소년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너는 사건의 복선이 된다.

7 ③

소녀는 꽃을 꺾어다 준 소년의 정성을 고마워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즐거워하고 있다. 한편 소년은 소녀가 미끄러져 다치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소년이나 소녀의 따분함의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8 ①

먹장구름, 바람 소리, 보랏빛으로 변한 주위, 굵은 빗방울 등은 ‘위기’ 부분에서 분위기 전환을 이끌면서 소년과 소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9 ③

이 작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소나기로 인해 인물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배경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위기감을 조성한다.
- ② 농부가 소나기 소식을 알려준 이후로 작품에 긴장감이 더해지며 분위기가 전환된다.

④, ⑤ 소나기로 인해 소녀와 소년이 원두막, 수숫단 속에서 함께 소나기를 피하고, 소녀가 소년의 등에 업혀 도랑을 건너는 등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은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된다.

10 ④

이 글에서 소녀와 소년이 개울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개울가는 소녀가 자주 놀던 장소이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소년은 혹시 소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기대하며 개울가로 나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소년은 소녀를 비 맞지 않게 하려고 자신은 비를 그냥 맞고 있다. 소녀는 그런 소년이 걱정돼서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말한다.
- ② 소녀는 소년과 가까이 붙어 앉으면서도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를 피하지 않는다. 소년에게 호감과 친근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소년이 소녀에게 등을 돌려 대는 것이나 소녀가 스스럼없이 소년의 등에 업히는 것 모두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전보다 많이 친밀해졌음을 보여 준다.
- ⑤ 소녀가 자신에게 던졌던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은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1 ④

‘소년은 소녀네가 이사해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 알고 있었다.’에서 소년이 소녀가 고향으로 이사 온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대추 (한 줌)

소녀는 이사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소년에게 대추를 건넨다. 이 대추는 소년을 좋아하는 소녀의 마음, 소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소녀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13 ⑤

소년이 아버지한테 윤 초시 맥에 가져갈 수탉을 큰 놈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소녀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다. 소녀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이후 소년은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 괜히 외양에 가서 쇠잔등을 철썩 갈긴다.

14 ②

소년이 갈꽃을 꺾는 것은 소녀네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심란한 마음이 들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다. 소녀에게 주기 위해 갈꽃을 꺾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소년이 갈림길에서 아래쪽 서당골 마을을 바라본 것은 소녀네가 서당골 마을에 살기 때문이다.

③ 소년은 소녀에게 호두를 주고 싶어 주머니에 호두알을 넣고 다니지만, 결국 소녀를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다.

④, ⑤ ‘이번 앤 ~ 못 써 봤다더군.’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서 소녀가 소나기를 맞은 후 여러 날 앓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제대로 약도 써 보지 못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죽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15 ④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소년의 감정이 거의 서술되지 않아 독자가 소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추측하게 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 감상×탐구

59~61쪽

1 ③, ⑤ 2 ③ 3 ④ 4 ③ 5 ⑤

1 ③, ⑤

이사를 가게 된 소녀는 소년에게 대추를 주면서 떠나기 전에 소년에 대한 호감을 전하고, 맛있는 대추의 맛을 보여 주고 싶었을 것이다.

2 ③

이 글에서 ‘조약돌’은 소년을 향한 소녀의 관심 또는 소녀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마음 등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꽃뫼음’은 ‘소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 준다.

② ‘대추’는 소녀가 이사가기 전에 소년에게 건네준 마지막 선물로, 소년에 대한 소녀의 호감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④ ‘분홍 스웨터’는 소녀와 소년의 추억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⑤ ‘호두’는 소년이 소녀에게 주고 싶어서 서리한 것으로, 소녀를 향한 소년의 호감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3 ④

소녀는 비를 맞는 소년이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수숫단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므로 소녀가 소년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③

이 글에서 인물 간의 뚜렷한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소나기가 소년과 소녀의 ‘갈등’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소나기’의 사전적 의미와 작품의 내용을 연결 지어 보면, 짧지만 강렬한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갑자기 내렸다가 갑자기 그치는 소나기처럼, 소녀와 소년의 사랑도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끝나게 된다.

④ ②와 비슷한 맥락에서 ‘소나기’는 우연히 찾아와 금방 끝나버린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의미한다.

⑤ 소년의 입장에서 ‘소나기’는 갑자기 찾아왔다가 소년에게 강렬한 기억의 흔적을 남기고 갑자기 떠나 버린 소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5 ⑤

상징은 작가의 생각이 사물을 거쳐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독자의 상상력을 키워 준다.

활동 응용 문제 - 적용×실천

62~63쪽

1 ① 2 ③

1 ①

‘행복, 희망’ 등의 추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은 ‘해’ 등이 있다.

2 ③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알아주기 전까지는 그가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였음을 뜻한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즉 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를 알아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때 ‘꽃’은 ‘몸짓’과 대비되는,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등을 상징한다.

1 (1) 해쓱했다 (2) 생채기 2 ⑤

1 (1) 해쓱했다 (2) 생채기

- (1) '해이하다'의 뜻은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 마음이 느슨하다.'이다.
 (2) '멍울'은 '우유나 풀 따위 속에 작고 둥글게 엉겨 굳은 덩이.'를 의미한다.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기도 한다.

2 ⑤

'잔망스럽다'는 '알면서도 맹랑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66~67쪽

학습 제재 정리 **꼭!**

관찰자, 사랑, 농촌, 개울가, 소나기, 이사, 죽음

학습 내용 핵심 **꼭!**

1 ④ 2 ① 3 (봄) 길

1 ④

<소나기>는 소녀와 소년의 서투르고 순수한 사랑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소설이다.

오답 해설

- ① '꽃뭍음'은 소녀와 소년이 함께 만든 것이다. 즉, 꽃뭍음은 소년과 소녀의 행복을 상징하기도 한다.
 ② '꽃뭍음'은 소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아름답고 연약한 소녀를 상징한다.
 ③ 수숫단 속에서 소나기를 피하다가 '꽃뭍음'이 우그러드는 장면에서, 소녀의 비극적 운명이 암시된다.
 ⑤ '꽃뭍음'을 만들 때, 소년이 소녀를 위해 꽃을 꺾어 건네주기도 했다. 따라서 소녀에 대한 소년의 호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2 ①

문장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은 힘든 날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이다. '힘든 세상 속 촛불

하나, 지친 어깨를 다시 펴고 살아.'는 상징적 표현으로, 의미가 우회적으로 전달된다.

3 (봄) 길

<보기>의 시에서 '길이 끝나는 곳'은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길이 있다'라는 것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완전히 끝이 아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길', '봄 길'은 이 시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68~70쪽

- 01 ② 02 ④ 03 ③ 04 ㉠의 조약들은 소년을 향한 소녀의 관심을 의미한다. 05 ③ 06 ④ 07 ①
 08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뭍음이 우그러들었다.
 09 ⑤ 10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11 ⑤ 12 ⑤ 13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01 ②

(나) 부분을 보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가을 농촌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인 소년과 소녀의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③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소년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소설로 갈등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02 ④

(다)에서 소년은 소녀가 계속 보이지 않자 허전함을 느끼며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이 후련함을 느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소녀는 소년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 주기를 기다리며 길을 비켜 주지 않고 있었다.
 ② (나)는 소녀가 갈꽃을 안고 들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감각

적으로 묘사하였다.

③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뵈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와 같은 서술을 보면, 소년이 소녀가 가는 모습을 계속 서서 지켜봤다는 것으로, 소녀와 헤어지는 것을 내심 아쉬워하는 소년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와 같은 서술을 보면, 소녀의 흰 피부와 대조되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함을 알 수 있다.

03 ③

소녀에게 비켜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개울둑에 앉아 기다리기만 하는 모습에서 소년의 소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의 조약돌은 소년을 향한 소녀의 관심을 의미한다.

'조약돌'은 소녀가 소년에게 관심을 표현한 방법이자, 소년이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소녀가 떠오르고 그리울 때마다 주무르게 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년을 향한 소녀의 관심', '소녀를 향한 소년의 관심', '소녀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마음'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에서는 소년을 향한 소녀의 마음이 담겨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소녀의 마음을 포함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소녀의 마음과 관련하여 소재의 의미를 썼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소재의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05 ③

'이 바보.'는 소년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관심을 보여 주고 먼저 말을 걸어 주길 바랐지만, 그 마음을 몰라 주고 개울둑에 앉아 있기만 하는 소년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소녀의 답답함과 서운함이 담겨 있는 말이다. 소년이 자신을 몰래 보고 있어서 소녀가 화가 났다는 서술은 이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06 ④

소녀를 위해 공간을 내어 주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에서 소녀를 배려하는 소년의 헌신적인 태도가 보인다. 소녀 또한 소년에게 자신의 옆에 들어와 앉으라고 하고, 소년이 뒷걸음치다가 꽃뭉음을 망가뜨리고 몸 냄새를 풍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소녀가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소녀가 미끄러지면서 소년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이끌어 올려 주고, 소녀가 다친 곳을 치료해 주는 등의 사건을 통해 사이가 더욱 가까워진다.

② 소년이 먼저 송아지를 보러 가자고 주도하는 모습에서 전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갑자기 어두워지며 보랏빛으로 변하는 배경에서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⑤ 소년이 말없이 등을 돌리고 소녀가 순순히 업히는 장면에서 이전보다 둘 사이가 많이 친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07 ①

(가)에서 소녀가 서울의 동무(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타나지만, 소년이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④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년은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에서 소녀가 다친 것이 왠지 자신 때문인 것 같은 후회와 안타까움, 미안함이 나타난다.

③, ⑤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 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에서 송아지를 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소년의 자랑스러움, 자부심이 느껴진다.

08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우그러들었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음 같다.'와 같은 표현에서 소녀와 꽃(꽃뭉음)은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꽃뭉음이 우그러들었다'는 것은 소녀의 불행,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09 ⑤

소녀가 소년에게 업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산'은 꽃을 꺾고, 송아지를 타는 등 소년과 소녀가 함께 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공간이다.

②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때문에 소녀와 소년은 원두막, 수숫단 속에서 비를 피하게 된다.

③ 수숫단 속에서 비를 피할 때, 소년이 소녀 옆에 붙어 앉아 몸 냄새가 풍겨도 소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소년의 몸기운으로 떨리던 몸이 누그러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소녀가 소년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많이 가까워

졌음을 알 수 있다.

④ ‘도랑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붙어 있었다.’라는 서술을 보면 소나기 때문에 도랑에 물이 붙어났음을 알 수 있다.

10 서술형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원두막과 수숫단 속에서 함께 소나기를 피하고, 소나기 때문에 불어난 도랑을 건너면서 소년과 소녀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의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잘 지켜서 소나기의 역할을 알맞게 서술한 경우	5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소나기의 역할을 알맞게 서술한 경우	3
소나기의 역할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11 ⑤

‘말이 아니다’는 ‘사정, 형편 따위가 몹시 어렵거나 딱하다.’라는 뜻의 관용구이다. 소년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면, 윤 초시 댁에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에서 그들이 윤 초시 댁의 불행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이 작품은 소녀와 소년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소녀와 소년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던 상황에서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 갑작스레 이별하게 된 비극적인 결말에 독자들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② ‘악상’은 흔히 젊어서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에서 소녀가 죽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결말에서 소년은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으며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소년의 반응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오히려 독자가 소년의 심정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12 ⑤

<보기>를 참고하면 ‘호두알’은 소년이 소녀가 이사가기 전에 건네주기 위해 덕희 할아버지네에서 몰래 따 온 것이다. 따라서 이 소재에는 소녀에 대한 소년의 호감, 이제 곧 이사를 가는 소녀와 헤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오답 해설

① ‘소녀가 소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이 글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소설의 다른 부분에서 소녀가 이사 가기 전 소년에게 건넨 ‘대추’에 이러한 소녀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③ 소년은 소녀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지는 않았다.

④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한 소녀의 심정은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되어 심란해진 ‘소년’의 마음을 드러낸다.

13 서술형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소녀의 ‘분홍 스웨터’에는 소녀와 소년의 추억이 담겨 있다. 이 옷을 입힌 채 묻어 달라고 한 것은 추억을 끝까지 간직하고자 하는 소녀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소년과의 추억을 언급하며 소녀가 ㉠처럼 유언한 까닭을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
㉠처럼 유언한 까닭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 확인 문제 74~76쪽

1 176개의 형벌 2 ④ 3 ③ 4 ① 5 두 다리는 목직했지만 마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가벼웠다. 6 ③

1 176개의 형벌

글쓴이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 12층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 걸어 올라가야 하는 176개의 계단을 ‘176개의 형벌’에 빗대어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리를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2 ④

‘나’가 아니라 관리 사무소에서 통행이 불편하니 미리 계단에 있는 것들을 치워 달라고 방송도 하고, 게시판에도 붙여 놔두고 하였다.

3 ③

‘나’는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옆집 할머니를 도와드릴지 고민하며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4 ①

‘나’는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과 할머니를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와 다른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5 두 다리는 목직했지만 마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가벼웠다.

직유법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마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가벼워졌다고 표현하였다. 직유법은 ‘듯이’, ‘처럼’ 등의 연결어를 활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6 ③

이 글에서 할머니가 글쓴이에게 직접 조언을 건네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글쓴이는 ‘징크스’가 외부 요인과는 관련 없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달았다.
- ② 글쓴이는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 드리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 ④ 글쓴이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결심한 뒤에 마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가벼워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계단을 오르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 더한 형벌임을 깨달았다.

활동 응용 문제 - 과정×탐구 77~82쪽

1 ⑤ 2 ⑤ 3 ②, ⑤ 4 ② 5 (1) × (2) ○ (3) ○
 6 ④ 7 ④ 8 ④ 9 양심 10 주요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11 ⑤

1 ⑤

세라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났지만, 옆집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을 글감으로 정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도와준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2 ⑤

자신의 경험에서 글감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이더라도 무언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경험은 글감으로 쓸 만한 경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②, ⑤

친한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다투었을 때는 속상함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에는 무서움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모두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②

세라는 계단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묶는 척하며 할머니를 모르는 척하는 동안 억울한 감정이 아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5 (1) × (2) ○ (3) ○

- (1) 경험을 정리할 때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 (2) 자신의 경험을 정리할 때 경험 당시에 느꼈던 감정까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도움이 된다.
- (3)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 원인과 결과, 육하원칙, 생각 그물 만들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6 ④

원인과 결과에 따라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이고, 그 결과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밝혀 정리해야 한다.

7 ④

세라는 집에 도착하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176개의 계단을 ‘176개의 형벌’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글쓴이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생생하게 드러내었다.

8 ④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과장하거나 거짓된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자신의 생각이나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경험에서 얻은 생각이나 깨달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독

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글을 쓰기에 앞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한 방법을 고려하여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써야 한다.

9 양심

세라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몸이 힘들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평소 당연하게 누리던 편리함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했다.

10 주요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세라의 글을 읽은 친구들은 체육복이 뜯어지면서 짜증이 났던 감정이나, 할머니를 외면하려고 했던 속마음 등을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그 이후 마음의 변화에 더 공감이 갔지만, 옆집 할머니와 있었던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썼다면 훨씬 감동적이었다고 했으므로 보완할 점으로 주요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⑤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가 아니라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오답 해설

- ① 자신의 행동과 태도, 가치관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며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 ③ 의미있는 경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 ④ 정서를 표현한 글을 독자와 공유하고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며 수정하는 과정에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 적용×실천

83~85쪽

1 ① 2 ④ 3 장면 4 ② 5 ② 6 ④

1 ①

만화는 컷 수와 칸의 크기가 제한이 있으므로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지문과 말풍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만화는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표현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③ 만화는 이미지와 글자가 결합된 장르이다.

④ 만화는 분리된 각각의 장면이 이어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⑤ 만화는 분리된 각각의 장면이 이어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되므로, 내용 및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어떤 장면을 선정하여 표현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④

만화의 첫 번째 컷에서 과장하여 크게 그린 땀방울을 통해 힘들고 괴로운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만화의 세 번째 컷에서 말풍선 속 대사와 함께 악마와 천사가 각각 서로 다른 말을 속삭이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만화의 두 번째 컷에서 '4F'라는 글씨를 제시하여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4층)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만화의 첫 번째 컷에서 '헉헉'이라는 의성어를 제시함으로써 '나'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표현했다.

⑤ 원래의 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할머니의 대사('아이구, 고마워요.')를 만화에 새롭게 제시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3 장면

만화는 컷 수와 칸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경험을 매끄럽게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면 서도 그 당시에 느꼈던 정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을 고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4 ②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인 '운율'은 만화를 완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네 칸 만화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의성어, 의태어, 지문, 말풍선 등이 있다.

5 ②

만화를 감상할 때에는 그림을 실제의 모습처럼 잘 그렸는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서나 생각, 깨달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③ 만화를 감상할 때에는 만화에서 좋았던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쉬운 점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정서나 생각,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 말풍선, 지문, 인물의 표정, 행동 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감상해야 한다.

6 ④

만화를 독자와 공유한 후 독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만화를 수정하는 과정이다.

오답 해설

① 독자의 모든 감상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

② 독자의 반응을 토대로 자신의 만화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독자와의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③ 만화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쓰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⑤ 만화를 통해 기존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만화를 수정해야 한다.

+ 플러스 어휘 문제

87쪽

1 (1) 안심 (2) 신바람 2 (1) 참담하다 (2) 평안하다

소단원 핵심 정리

88~89쪽

학습지재 정리 **퀴**

심리, 비유, 운, 외면, 고민, 마음

학습내용 핵심 **퀴**

1 ⑤ 2 ⑤ 3 ④ 4 ⑤

1 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글쓴이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여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준다. 이때의 경험은 사소하더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면 글감이 될 수 있다. 쉽게 겪기 어려운 경험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④ 자신의 경험과 당시의 생각,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2 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떠올린 뒤, 의미 있었던 일을 찾아 글감으로 정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내용 정리 방법은 글감 구체화하기 단계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활용한다.

3 ④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고 해서 개인적인 내용을 모두 노출하여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내용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4 ⑤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의 행동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글을 읽은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단원 핵심 문제

90~91쪽

01 ④ 02 ③ 03 ⑤ 04 의인법, 자전거를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전거가 넘어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05 ① 06 ④ 07 하지만 그 조금만이 시간 여행이라도 하듯이 무척 길게 내 가슴속에서 고통쳤다. 08 행복과 불행은 모두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09 ①

01 ④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정서,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이다.

02 ③

‘나’는 우연히 안 좋은 일을 겪고 나면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징크스가 있다고 하였고 계단을 오르면 불행한 일이 생기는 징크스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03 ⑤

넘어뜨린 자전거를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옮긴 행동은 자전거에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한 것이므로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끝나기까지 3주나 더 고통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나’의 고통스럽고 힘든 감정이 드러난다.

04 **서술형** 의인법, 자전거를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전거가 넘어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사람이 아닌 자전거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쓴이가 겪었던 상황을 보다 효과적이고 인상 깊게 표현하였다.

평가 기준	배점
문장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표현을 효과를 모두 서술한 경우	5
문장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문장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 모두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05 ①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중심으로 쓴 글이므로 다양한 주제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③ 글쓴이의 삶과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과장하거나 거칠진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한다.

④ 글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인지 고민한다.

⑤ 자신이 경험한 일 중 감정이나 생각,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의미 있었던 것을 글감으로 선정해야 한다.

06 ④

‘나’가 계단에서 마주친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로 짐을 들고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할머니와 거의 인사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② ‘나’는 옆집 할머니를 마주쳤으나 처음에는 외면하려 했다.

③ 옆집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평소에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나’는 학원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내려가는 계단에서 할머니와 마주쳤다.

07 하지만 그 조금만이 시간 여행이라도 하듯이 무척 길게 내 가슴속에서 고통쳤다.

글쓴이는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모르는 척 외면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 ‘시간 여행이라도 하듯이’라고 표현했다.

08 **서술형** 행복과 불행은 모두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불행이 연달아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작은 선행으로 인해 뿌듯한 기억으로 바뀐 경험을 통해 글쓴이는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평가 기준	배점
㉠이 의미하는 바를 글쓴이의 깨달음과 관련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
㉠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한 문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	3
㉠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1

09 ①

이 글을 읽은 친구는 글 속에 드러난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에 공감하며 자신의 지난 경험을 돌이켜 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 글쓴이의 주장이나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였으나, 제시된 독자의 반응과는 관련이 없다.

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지켜 주는 구명조끼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헌혈이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헌혈을 구명조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06 ③ 07 ①, ⑤ 08 ④ 09 ②, ⑤ 10 ③ 11 ③ 12 ⑤ 13 ⑤ 14 소녀에게 말을 걸지 않는 소년의 소극적인 태도가 서운하고 답답했기 때문이다. 15 ⑤ 16 ② 17 ⑤ 18 소년이 소녀가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물속에 손을 넣고 움기던 행동을 의미한다. 19 서로 헤어져야 하는 갈림길에 다다른 소녀는 소년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20 ② 21 ㉠은 소년과 소녀의 추억의 흔적을 상징한다. 22 ⑤ 23 ③ 24 ② 25 ② 26 ⑤ 27 ②, ⑤ 28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29 ④ 30 ① 31 직유법을 활용하여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고 외면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불편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32 할머니를 모르는 척하며 느낀 양심의 고통이 진정한 형벌이다. 33 ① 34 ① 35 ②

01 ④

이 시는 민들레 흙씨를 부는 아가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으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02 ⑤

이 시에서 아가가 모자를 쓰고 민들레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② 2연에서 아가는 작은 입술을 내밀고 민들레를 향해 입김을 불고 있다.
- ③ 3연에서 봄바람 같은 아가의 숨결에 민들레 흙씨가 날아가고 있다.

03 ④

㉠에서 사용된 표현은 의인법이다. 사람이 아닌 민들레를 사람처럼 표현하여 민들레 흙씨를 부는 아가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통해 아가를 향한 민들레의 따뜻한 시선을 잘 드러내었다. ④의 '파도가 힘차게 노래한다.' 또한 파도를 힘차게 노래하는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②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일은 헛되지 않아 그만큼 보람이 있다는 뜻의 속담이다.
- ③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⑤ 비유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고 의성어인 '뚝뚝'이 사용되었다.

04 ⑤

내년에 자라 있을 아가의 숨결이 힘차고 따뜻할 것이라고 표현하며 아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민들레의 마음을 정겹고 따스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화사하게 꽃이 핀 봄날의 풍경을 예찬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 ③ 민들레 흙씨를 불던 지난날의 추억을 돌아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④ 시련을 극복한 민들레의 생명력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05 **서술형**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지켜 주는 구명조끼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헌혈이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헌혈을 구명조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사이의 공통점과 비유 표현을 사용한 의도를 모두 서술한 경우	5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사이의 공통점과 비유 표현을 사용한 의도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사이의 공통점과 비유 표현을 사용한 의도 모두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06 ③

(가)에서 의미상 반대되는 시어들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가)의 말하는 이가 '나'(민들레)로 등장하여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④ '후후후'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반복되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 ⑤ '봄바람 같은 너의 숨결', '작은 입술 뽀뽀하듯' 등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07 ①, ⑤

(가)에서 ‘민들레’를 ‘털방울’과 ‘낙하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보다 참신하고 재미있는 느낌을 준다.

오답 해설

③ ‘봄바람’은 아가의 따뜻한 ‘숨결’을 빗댄 대상이다.

08 ④

(나)에서는 ‘~에 사랑이 ~요.’ ‘그대만’ 등의 표현을, (다)에서는 ‘가자’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음악성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의인법은 (나), (다)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시어의 생략은 (나), (다)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나), (다) 모두 처음과 끝이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 ⑤ 비슷한 두 대상을 ‘처럼’, ‘듯이’ 등의 연결어를 활용하여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은 (나)에서만 쓰였다.

09 ②, ⑤

(나)의 ㉠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직유법의 특징은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대상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③, ④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10 ③

(다)의 말하는 이는 ‘가자’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숲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지난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말하는 이가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11 ③

소녀는 소년이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물장난을 치다가 다른 지나가는 사람이 오자 길을 비켜 주었다. (나)에서도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소녀가 서울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 ② 소녀가 갈꽃을 안고 들길을 걸어가는데 ‘저쪽 갈밭 머리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라고 표현했다.
- ④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 ⑤ 갈꽃은 소녀가 안고 있었던 것으로, 갈꽃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은 소년이 소녀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2 ⑤

‘개울, 징검다리, 들길, 갈밭’ 등은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농촌과 관련된 소재로, 소설의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단발머리는 소녀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향토적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

13 ⑤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물장난을 하는 소녀가 비키기만을 기다리는 소년의 행동에서 소년의 소심한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4 서술형 소녀에게 말을 걸지 않는 소년의 소극적인 태도가 서운하고 답답했기 때문이다.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기 전에 소녀에게 말을 걸지 않고 개울둑에 앉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바보’라는 표현을 통해 소년의 행동이 답답하고 서운한 소녀의 감정과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의 이유를 소년의 태도와 연관 지어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
㉠의 이유를 소년의 태도와 연관 지어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한 문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	3
㉠의 이유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1

15 ⑤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챙겨 주머니에 넣은 행동에서 소녀를 향한 소년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④ 소녀와 소년 사이의 갈등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16 ②

(나)에서는 소년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는 소녀를 피해 달리다가 디딤돌을 헛짚어 발이 물에 빠지는 모습을 통해 소년의 당황스러운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소년이 검게 탄 자신의 얼굴을 못마땅해하는 모습과 그 이후 물속에 손을 넣고 움키다가 소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타난다.

③ (다)에서는 소녀와 눈이 마주치자 눈을 떨구는 모습을 통해 소년의 수줍어하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

④ (라)에서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과 소녀와 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⑤ (마)에서는 소녀를 뒤따라 달리던 소년이 소녀를 앞서 달리는 모습을 통해 소년이 점차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7 ⑤

‘우대’는 ‘위가 되는 쪽.’을 의미한다.

18 서술형 소년이 소녀가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물속에 손을 넣고 움키던 행동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배점
㉠의 의미를 공간적 배경과 연관 지어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
㉠의 의미를 공간적 배경과 연관 지어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한 문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	3
㉠의 의미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1

19 서술형 서로 헤어져야 하는 갈림길에 다다른 소녀는 소년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소녀가 각각의 집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소년에게 말을 걸었는데 공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과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소녀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소녀가 소년에게 먼저 말을 건 까닭을 장소의 특성과 연관 지어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
소녀가 소년에게 먼저 말을 건 까닭을 장소의 특성과 연관 지어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한 문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	3

20 ②

소녀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우쭐거리게 허수아비 줄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소녀의 즐거운 감정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소녀의 외로운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소녀는 소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④ 자신에 처지에 소녀가 분노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⑤ 허수아비가 소년에 대한 소녀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21 서술형 ㉠은 소년과 소녀의 추억의 흔적을 상징한다.

분홍 스웨터의 얼룩은 소녀가 소년에게 엮혔을 때 생긴 것으로, 소년과 소녀의 추억을 상징한다.

평가 기준	배점
㉠의 의미를 <조건>의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의 의미를 알맞게 썼으나 <조건>의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의 의미를 미흡하게 쓰고, <조건>의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22 ⑤

소녀가 대추를 내어 주며 “맛봐라.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라고 건넨 말과 이사를 가게 된 소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추는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소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을 상징한다. 그러나 소녀가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대추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소중히 대해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증조할아버지가 심었다는 맛있는 대추의 맛을 보여 주고 싶은 소녀의 심리가 드러난다.

23 ③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은 소년의 반응이 제시된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소녀가 한동안 앓았다는 말에 걱정하는 소년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소녀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이 아쉬워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소녀의 까만 눈에 쓸쓸한 빛이 떠돌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소년과 헤어지게 된 것을 서운해하는 소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소녀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는데, 고향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소녀네의 경제적 형편이 더 어려워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4 ②

㉓는 글감 구체화하기 단계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당시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오답 해설

- ① 주장과 근거는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의 성격과 거리가 멀다.
- ③ 인상 깊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은 글감 찾기의 단계에서 할 일이다.
- ④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보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깨달음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드러내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고, 독자에게 공유한 뒤에 할 수 있는 일이다.

25 ②

글쓴이는 벌써 일주일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앞으로 3주나 더 공사 기간이 남았다고 했다.

26 ⑤

계단을 오르는 것을 ‘형벌’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상황이 글쓴이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③ 글쓴이의 괴로운 감정은 드러나지만 지난 일을 후회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④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황이 글쓴이에게 슬프고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 ②, ⑤

글쓴이는 사람이 아닌 자전거가 사람처럼 ‘와장창 비명’을 지른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전거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③ 글쓴이는 계속된 불운 속에서 자전거를 넘어뜨리게 되었다. 이 장면에서 글쓴이의 깨달음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④ 자전거가 넘어지는 장면을 비명을 지른다고 표현한 것이므로 글쓴이의 고통스러운 심리와는 관련이 없다.

28 서술형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이다. <보기>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평소 당연하게 누렸던 편리함에 대해 생각하고, 불편함을 겪는 상황에서 느꼈던 자신의 심리를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평가기준	배점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효과를 <보기>와 관련지어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효과를 <보기>와 관련지어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한 문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	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효과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29 ④

복잡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경험 역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좋은 글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③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거짓된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⑤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유와 상징 등 다양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30 ①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이 글에서는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 드러나 있다.
- ③ 이 글에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객관적인 태도로 분석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에서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글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드러나지 않는다.

31 서술형 직유법을 활용하여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고 외면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불편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자전거를 묶는 척하며 할머니가 다음 계단을 오르시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을 ‘시간 여행’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에 사용된 비유 표현과 해당 비유 표현이 주는 효과를 글쓴이의 심리와 연관 지어 서술한 경우	5
㉠에 사용된 비유 표현과 해당 비유 표현이 주는 효과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
㉠에 사용된 비유 표현과 비유 표현이 주는 효과를 모두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32 서술형 할머니를 모르는 척하며 느낀 양심의 고통이 진정한 형벌이다.

㉠에서 글쓴이는 176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겪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도움이 필요한 옆집 할머니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오는 양심의 고통이 자신에게 더 큰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진정한 형벌의 의미와 연관 지어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
㉠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진정한 형벌의 의미와 연관 지어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문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	3
㉠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깨달음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1

33 ①

글쓴이의 마음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듯’ 가벼워졌다는 표현에서 연결어 ‘듯이’를 활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직유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글쓴이의 심리 변화를 효과적이고 감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①의 ‘배춧잎 같은 발소리’에도 발소리를 배춧잎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② 은유법을 사용하였다.
- ③ ‘꽃’, ‘피네’를 반복하는 반복법을 사용하였다.
- ④ 사람이 아닌 ‘산’이 ‘울적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의인법을 사용하였다.
- ⑤ 의태어 ‘주저리주저리’를 활용하여 풍요로운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34 ①

글쓴이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뒤 할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③ 할머니의 짐을 들어 드리는 순간 ‘오늘의 내 불행은 끝났다.’라는 표현에서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⑤ 글쓴이는 ‘휴우’라는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옆집 할머니의 한숨 소리를 강조하고 있다.

35 ②

다시 계단을 내려가다가 마주친 할머니를 외면하는 장면에서 글쓴이의 괴롭고 힘든 감정을 추측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려는 글쓴이의 마음은 짜증나는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2. 숨은 의미 찾기

(1) 추론하며 읽기



확인 문제

108~110 쪽

1 ⑤ 2 ④ 3 ⑤ 4 ④ 5 ② 6 ⑤

1 ⑤

부제의 '경계'는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의 뜻으로 이러한 단어를 통해 글쓴이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는 것은 '경계'의 의미와 연관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③ 기다리고 있다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경계'라는 표현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④

'하지만'은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어이다. '표지어'는 앞뒤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와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진 말이다. 표지어를 통해 문장 또는 문단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글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개념이 제시됨을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란 ~이다.', '~ 뜻이다.'와 같은 문장 구조 등이 있다.
- ②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표지어로는 '왜냐하면', '~ 때문에', '~ 이유로' 등이 있다.
- ③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표지어로는 '예를 들어', '예컨대', '구체적으로' 등이 있다.
- ⑤ 앞 문단을 보충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어로는 '그리고', '또한', '덧붙이자면' 등이 있다.

3 ⑤

이 글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문제점으로 '일자리의 감소'를 들고 있다. 글쓴이는 일자리의 감소가 발생하는 까닭은 인

공지능 기술이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동화'로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간이 더 이상 직접 일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글쓴이는 사람들이 하던 많은 일을 인공지능 기술이 자동화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가 많지 않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사람들이 쉽고 간단한 업무를 선호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사람이 원래 하던 많은 일을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단순한 일뿐만 아니라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까지도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4 ④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이유는 배경지식을 통해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것은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③, ⑤는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이 글에서 독자가 배경지식을 떠올려 봤다는 설명이므로 적절하다.
- ②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를 본 경험은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를 우려하는 글쓴이의 입장과 유사한 경험이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다.

5 ②

<보기>의 표현에서 '섰부르다'는 '솜씨가 설고 어설프다.'라는 뜻이고, '신중하다'는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뜻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한 준비 없이 들여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도를 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③ 마지막 문단의 앞부분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면에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 ④ 글쓴이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바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하지 않았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인공지능 기술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⑤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을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삶의 편리성을 높여 준다는 글의 설명과 연관되기는 하지만 글쓴이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설명이다.

②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설명이다.

③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는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고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과 거리가 먼 설명이다.

④ ‘정착하다’는 ‘새로운 문화 현상, 학설 따위가 당연한 것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지다.’라는 뜻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정착하고 있다는 설명은 이 글의 일부 내용이지만 글쓴이의 궁극적 의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활동 응용 문제 - 과정×탐구 111~114쪽

1 ④ 2 ③ 3 ③ 4 ④ 5 ② 6 ⑤ 7 ②

8 ①

1 ④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다. 중심 화제는 글의 제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심 화제는 글에서 반복적인 단어나 표현, 또는 글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데이터의 활용’은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정보와 연관되지만 이 글에서 논의되는 중심 화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⑤ ‘자율 주행 기술’은 ‘자동차 등이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하게 하는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이 최적의 주행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율 주행 기술의 발전’은 이 글에서 언급되는 표현이지만 중심 화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2 ③

이 글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선풍적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은 인공지능 기술의 선풍적인 도입을 반대하는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내용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일부 소수의 목소리라는 설명은 이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편리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인공지능 기술의 뜻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사생활 침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는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3 ③

지우가 추론에 활용한 단서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배경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추론하며 읽기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서 중 단어, 문장, 문단, 앞에 이어진 내용 등은 글에 나타난 정보이다.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 독자의 배경지식도 추론하며 읽기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서이지만, 글에 나타난 정보는 아니다.

4 ④

<보기>에서는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하고 있다. ‘나도’와 ‘무서웠어.’의 표현을 통해 인공지능의 도입에 관한 독자의 생각이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독자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결하여 글을 읽어 나갈 때 글을 더 쉽게 이해하거나 깊이 있게 읽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④에서 영화와 비교하면서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글쓴이의 생각이나 관점을 연결 지으며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독자가 영화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이러한 문제’라는 표현을 통해 영화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③ ‘대립’은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또는 그런 관계.’라는 뜻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위협하는 장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립 관계가 영화의 내용에 포함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독자는 영화를 보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무서웠던’ 감정을 떠올리며 인공지능 도입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걱정하는 글쓴이에게 공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5 ②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선부른 도입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의 의도는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독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②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변화의 과정이나 원인 등에 대한 연구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③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의 선부른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④ ‘양면적’은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두 가지 면이 있는.’의 뜻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편리성과 부작용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간의 감정 표현은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⑤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6 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나타나는 서술이다. 이 글에서는 일자리의 감소, 사생활 침해, 법적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나타나는 서술이다.

오답 해설

①은 ‘자율 주행 기술’과 관련된 설명이다.

②는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한 설명이다.

③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④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조적 활동에 관한 설명이다.

7 ②

‘편리’는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쉬움.’이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편리성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닌 긍정적인 면과 관련된다. 글쓴이의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한 부정적인 관점과는 상반되는 단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단어이다.

8 ①

추론하며 읽기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글의 내용과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글에 나타난 정보나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해 글쓴이가 전달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글을 쓴 의도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③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이해해야 하는 까닭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행간을 읽는다’는 표현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숨은 뜻을 파악한다는 의미로, 추론하며 읽기의 효과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글쓴이의 생각이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과 의도를 미루어 생각하며 읽는 것이 추론하며 읽기이다.

1 ① 2 부정적, 설득

1 ①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표현은 비유적 표현으로, 비닐과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위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생태계 교란종의 종류를 물어보는 질문은 광고의 의도에서 벗어난 질문이다.

오답 해설

②는 비닐로 표현된 맹수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와 의도를 추론하는 질문이므로 적절하다.

- ③은 중심 화제가 되는 대상과 언어 표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다.
- ④는 언어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론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다.
- ⑤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다.

2 부정적, 설득

공익 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다. 이 광고는 인간이 만들어 내고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광고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으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독자를 설득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플러스 어휘 문제 117쪽

1 ③ 2 (1) 도용 (2) 약용 (3) 남용

1 ③

‘오진’은 ‘병을 그릇되게 진단하는 일. 또는 그런 진단’의 뜻으로, <보기>에서는 ‘병원’, ‘복통’, ‘치료’ 등의 말을 통해 ‘오진’이 문맥상 적합함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오독: 잘못 읽거나 틀리게 읽음.
- ② 오류: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 ④ 오용: 잘못 사용함.
- ⑤ 오작동: 기계나 전자 제품이 기능 이상으로 잘못 작동함.

2 (1) 도용 (2) 약용 (3) 남용

- (1) 도용: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
- (2) 약용: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씀.
- (3) 남용: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소단원 핵심 정리 118~119쪽

학습재정리 **꼭!**
도입, 부제, 호기심, 문제점, 생각

학습내용핵심 **꼭!**
1 ⑤ 2 ① 3 ②

1 ⑤

<보기>의 문장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② ‘전망’은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는 뜻이다. <보기>의 문장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모습보다는 부작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2 ①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의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①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열린 태도로 받아들여야겠다는 반응은 인공지능 기술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견해로, 글쓴이의 견해와는 상반된 관점을 지니고 있는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② 인공지능 기술의 이점 외에 다른 면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②

추론하며 읽기의 효과는 독자가 글에 나타난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면서 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에서 글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추론하며 읽기가 아닌 사실적 읽기에 해당한다.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추론하며 읽기로 나아갈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능동적’은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이라는 뜻이다.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으려면 독자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

으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관점과 의도 등을 추론할 수 있다.

⑤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하면서 읽으면 글의 중심 화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과 비교하여 글쓴이의 관점을 수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문제

120~122쪽

-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③ 06 ④
- 07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 일자리 감소, 사생활 침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08 ⑤ 09 ③
- 10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11 ①
- 12 ③ 13 ② 14 ② 15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의 균형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01 ④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선부르게 도입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썼으므로 ④의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 ②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다.
- ③ 대상에 관한 글쓴이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의 갈래는 문학적인 글이다.
- ⑤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창작하여 표현하는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02 ②

(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편리성’에 관해 의료 분야와 자동차 분야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03 ④

이 글의 화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마)~(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종합하면 선부른 기술 도입을 ‘경계’하라는 것이 글쓴이의 의도임을 추론할 수 있다.

04 ②

②는 (다)에서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병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알맞다.

오답 해설

- ① (다)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 기술 발달을 설명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로 교통을 통제한다는 내용은 없다.
- ③ (다)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 기술이 운전자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운전자를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마)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 ⑤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고 설명했지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05 ③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는 단어, 문장, 문단, 앞에 이어지는 내용 등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이다. 이 글에서는 부제, 표지어, 독자의 경험, 문장, 앞에 이어지는 내용을 단서로 활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 관한 전문가의 말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② (마)~(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점을 나열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염려하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영화 관람 경험으로 얻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악용되는 문제를 우려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06 ④

‘하지만’은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어이다. 이러한 표지어를 통해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다. ㉠에서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편리한 점만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으므로 반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편리성과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은 앞 문단과 이어지므로 ‘그리고’, ‘덧붙이자면’ 등의 표지와 함께 제시될 수 있다.
- ② 까닭이나 이유는 ‘왜냐하면’, ‘때문이다’ 등의 표지와 함께 제시될 수 있다.
- ③ 인공지능 기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내용이 이어진다면 ‘예컨대’, ‘먼저’, ‘다음으로’ 등의 표지와 함께 제시될 수 있다.
- ⑤ 기술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편리성이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07 서술형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 일자리 감소, 사생활 침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까닭’에 대해 (마)~(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으라고 했으므로 (마)에서 일자리 감소, (바)에서 사생활 침해, (사)에서 법적 책임의 문제를 찾아서 한 문장으로 서술한다.

평가 기준	배점
(마)~(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찾아 서술하였으며,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게 쓴 경우	5
(마)~(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중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마)~(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한 가지만 찾아 서술하였으며, <조건>의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08 ⑤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⑤에서는 글쓴이의 관점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④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을 때의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① ‘효율성’은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라는 뜻이다. ③ ‘절감’은 ‘아끼어 줄임.’이라는 뜻이다. ④ ‘선별하다’는 ‘가려서 따로 나누다.’이라는 뜻이다.

09 ③

<보기>의 ‘이러한 문제’는 인공지능이 통제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과 연관된다. (사)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기술이 ‘오진’, ‘오작동’, ‘악용’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②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인공지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립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통제하다’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다.’라는 뜻이다.
- ② 이 글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되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 ④ 인공지능 기술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오작동’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추론이다.

10 서술형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며 (마)~(아)의 내용을 통해 글쓴이의 부정적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한 글쓴이의 입장을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11 ①

<보기>에서 ‘반대’, ‘위협’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러나 ①의 ‘자동화’와 ‘효율적’은 인공지능 기술의 편리성과 관련 있는 용어로 글쓴이의 관점과 대조된다.

오답 해설

- ② ‘문제’, ‘논란’ ③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④ ‘오진’, ‘오작동’, ‘악용’, ⑤ ‘고민’은 모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관점과 관련되므로 적절한 단서이다.

12 ③

이 광고에서는 맹수처럼 표현한 ‘비닐봉지’의 이미지와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표현,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 스리랑카 코끼리의 죽음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고 설득하는 의도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생태계 교란종'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를 어지럽힌다는 의미이다. 생태계 교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광고의 중심 의도에서 벗어난다.
- ② '생물 다양성'이란 생태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 광고에서는 생물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초점이 있다.
- ④, ⑤ 이 광고는 플라스틱 쓰레기 사용을 줄이자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13 ②

'참신하다'는 '새롭고 산뜻하다.'라는 뜻으로 긍정적 의미의 단어이다. 이 광고에서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표현에서는 '새로운'에서 '전에 없이 등장한.'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즉, 플라스틱은 전에 없이 등장하여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위협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인간이 만든'의 대상이 '플라스틱 쓰레기'임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 ③ 덩치가 큰 코끼리를 비닐봉지 앞의 작은 이미지로 표현하여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협 앞에서 힘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검은 비닐봉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와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경험, 즉 배경지식을 통해 광고의 의도를 적절하게 추론하였다.

14 ②

<보기>는 광고의 언어 표현에서 생략된 내용이나 논리적인 관계에 대해 추론하기 위한 질문이다. 구체적 숫자를 통해 한국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며, 이렇게 소비된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스리랑카 코끼리와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②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플라스틱 소비량과 코끼리의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스리랑카에 유출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 ④ 코끼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피해를 입은 생태계를 상징할 뿐, 플라스틱 쓰레기로 코끼리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 ⑤ 코끼리의 이동은 이 광고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15 서술형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의 균형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 낸 플라스틱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쓰레기로 생태계의 균형을 어지럽히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생태계 교란종'이다. 광고의 제작 의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생태계 교란종이 가리키는 대상과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하고 광고의 제작 의도를 고려하여 서술한 경우	5
생태계 교란종이 가리키는 대상과 의미를 추론하였으나 광고의 제작 의도를 고려하여 서술하지 않은 경우	3
생태계 교란종이 가리키는 대상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광고의 제작 의도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2) 추론하며 듣기

활동 응용 문제 - 과정×탐구

126~131쪽

- 1 ③ 2 불편해요 3 ① 4 ⑤ 5 ① 6 ⑤ 7 ③
8 ② 9 ② 10 ③ 11 취약, 활용/이용 12 ③

1 ③

상황 맥락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 처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 맥락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화자의 의도와 말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은 구

두 가게에서 점원과 손님의 관계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고 ㉓는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㉓의 “많이 불편하세요?”는 “신발이 많이 불편하세요?”라는 의미이며, 청자에게 신발의 착용감을 확인하는 의도이다.

오답 해설

⑤ 같은 질문이라도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같은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들어야 한다.

2 불편해요

㉓는 신발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신발이) 많이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있고, 청자는 신발을 신어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네, 신발이 작아서 불편해요(안 맞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3 ①

이 대화의 상황 맥락을 살펴보면 교실에서 친구 사이인 화자(건우)가 청자(민서)에게 말하고 있다. 정현이가 다친 사실을 말하며 “우리가 도와줄까?”라고 말한 것에는 정현이를 함께 도와주자는 제안의 의도가 담겨 있다. ㉓에서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라는 뜻으로, 마음이 통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제안에 대한 ‘수락(요구를 받아들임.)’의 의도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④ 회피: 피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 일하기를 꺼리어 선뜻 나서지 않음.

4 ⑤

이 대화의 상황 맥락은 아들의 방에서 밤 9시와 밤 11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㉓에서 화자(엄마)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청자(아들)에게 “게임 몇 시까지 할 거니?”라고 물어보고, 청자는 “10시까지 할게요.”라고 답하며 게임을 마치는 시간을 정하고 있다. ㉓에서 화자는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못마땅한 표정과 말투로 “지금 몇 시니?”라고 말하고 있다. 앞선 맥락을 고려할 때 화자는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나무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㉓와 ㉓에서는 모두 ‘시간’이 대화에서 중요한 상황 맥락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5 ①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 따르는 목소리 크기, 말하는

속도, 말투 등을 말하며,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 아닌 표정, 동작, 자세 등을 가리킨다. ㉓에서 화자는 준언어적 표현인 못마땅한 말투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아들을 나무라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목소리가 상황에 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이다.

③ 한숨을 쉬는 동작은 준언어적 표현이 아닌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④ 인상을 찌푸린 표정은 준언어적 표현이 아닌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⑤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는 행동은 준언어적 표현이 아닌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6 ⑤

이 대화의 상황 맥락과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해 보면, 승주와 민호는 학교 복도 계단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승주(화자)가 양손에 책을 들고 이동하는 상황이다. 승주(화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너 시간 있어?”라고 물어보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의도이다. 그러므로 “응, 있어.”라는 민호의 대답은 승주(화자)를 도와주겠다는 수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표면적 의미 그대로 이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7 ③

이 뉴스의 진행자는 비대면화로 인해 주문을 무인 시스템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변화 속도가 빨라 정보 취약 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문제를 중심 화제로 추론할 수 있다.

8 ②

이 뉴스에서 정보 취약 계층은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보 취약 계층은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며,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외되는 문제까지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면담에서 ‘하다가 안 돼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도 어려움에 포기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 취약 계층이 디지털 기기를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⑤ 이 뉴스에 나타난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조작 모습을 고려할 때 정보 취약 계층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9 ②

어르신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도한 것은 디지털 기기가 낮은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도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은 이 보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다.

10 ③

③은 키오스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기자의 생각이나 의도가 드러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어색한 순간’이라는 표현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포기합니다’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의 부족으로 키오스크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고령층에게 키오스크가 어려운 까닭을 제시하면서 키오스크가 정보 취약 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정보 취약 계층이 디지털 정보의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1 취약, 활용/이용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는 91.7%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활용 역량 수준은 60.2%로 일반 국민 대비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활용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12 ③

뉴스는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기자의 관점이나 의도를 반영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이 뉴스에서 사용한 표현과 자료 등으로 보아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각하다는 문제 상황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심을 촉구하려는 기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④ 기자는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도하고 있으므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문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관점만 드러내고, 긍정적 관점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활동 응용 문제 - 적용×실천

132~135쪽

- 1 ③ 2 아니다 3 ④ 4 자연방사 5 ⑤ 6 ③
- 7 설득 8 ③

1 ③

‘질문 1’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벨루가(흰고래)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물이라서 좁은 수조의 환경에서 정형화한 행동(목적 없이 반복하는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초음파로 물체를 감지하는데 수조 환경에서 귓병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질문을 고려하여 면담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할 때 아쿠아리움(수족관)은 벨루가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형화한 행동은 돌고래를 수족관에 가둘 때 발생하는 문제 행동이므로 ③에서 정형화한 행동을 잘하도록 훈련받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아니다

‘질문 1’의 답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고, 초음파로 물체를 감지하는 벨루가의 생태적 특성이 아쿠아리움(수족관) 환경과 맞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면담 대상자는 벨루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쿠아리움(수족관)이 최적의 환경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답변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④

면담 대상자는 ‘질문 2’의 답변에서 올챙이는 인간에게 억류됐다고 인식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돌고래는 두뇌가 발달하여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두 생물의 인지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올챙이와 돌고래를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4 자연 방사

면담 대상자는 ‘질문 3’의 답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돌고래는 위험에 처하더라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할 것이므로 돌고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연 방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5 ⑤

면담 대상자는 '질문 4'의 답변에서 돌고래가 보고 싶다면 그들이 사는 바다에 찾아가서 직접 만나야지, 돌고래를 가둔 수족관에 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돌고래가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에 적합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면담 대상자는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나요?'라고 질문을 하며 인간에게 돌고래의 삶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생각을 밝히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면담 대상자는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잡혀 와 있고, 그런 시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잡혀 와서 갇혀 사는 동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6 ③

면담 대상자는 아쿠아리움이 행동반경이 넓고 초음파로 물체를 감지하는 벨루가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질문 2'에 대한 답변에서 올챙이와 돌고래의 인지 능력을 비교하며 동물의 인지 능력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방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면담 대상자는 동물들의 인지 능력에 상관없이 자연 방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인지 능력과 상태에 따라서 방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7 설득

면담 대상자는 아쿠아리움(수족관)이 벨루가의 생태적 특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벨루가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족관이 동물 친화적이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면담 대상자의 말에는 동물 친화적이지 않은 수족관에 가지 않도록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8 ③

면담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생각이 나타나는 말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추론할 수 있다. 동물에게 수족관 같은 인공적 환경은 인간 중심적인 공간이며,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⑤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동물들의 생태적 환경을 지켜 주고 자연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플러스 어휘 문제

137 쪽

1 ③ 2 (1) 보편 (2) 생태 (3) 억류 (4) 인지

1 ③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는 '격차'이다.

2 (1) 보편 (2) 생태 (3) 억류 (4) 인지

- (1) 보편: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 또는 그런 것.
- (2) 생태: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
- (3) 억류: 억지로 머무르게 함.
- (4) 인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소단원 핵심 정리

138~139 쪽

학습 제재 정리 **꼭!**

격차, 사례, 면담, 수족관, 당부, 근거

학습 내용 핵심 **꼭!**

1 ④ 2 ④ 3 ②

1 ④

①의 화자와 청자는 병원이라는 장소에서 아픈 부위의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므로 병원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③ 가의 화자와 청자는 구두 가게라는 장소에서 구두를 화제로 하여 구두의 착용감이 불편한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2 ④

화자의 말투, 표정, 행동은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언어적 표현 외에도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④의 못마땅한 말투는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청자가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 ②

<보기>에서는 정보 취약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⑤ 미래 지향적: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소단원 핵심 문제

140~141 쪽

- 01 ④ 02 그래, 좋아. 우리 함께 정현이를 도와주자.
- 03 ⑤ 04 ④ 05 아니, 지금 선생님이 급히 부르셔서 도와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06 ⑤ 07 ④ 08 ④
- 09 디지털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정보 취약 계층과 일반 국민 사이에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01 ④

‘이심전심(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의 언어적 표현에 담긴 뜻을 고려하면 정현이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통했다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건우가 민서에게 다친 정현이를 함께 도와주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⑤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은 자기 사정이 급해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뜻이므로 민서가 정현이를 도와줄 여유가 없다는 의미이고, 정현이를 도와주자는 건우의 제안을 거절하려는 의도이다.

02 서술형 그래, 좋아. 우리 함께 정현이를 도와주자.

“우리 이심전심이구나.”라는 대답을 직접적인 수락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바꾸어 표현하려면 정현이를 함께 도와주자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 기준	배점
건우의 제안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명확한 표현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건우의 제안 의도를 파악하였으나 수락 의도가 <조건>에 맞게 표현되지 않은 경우	3
건우의 의도를 파악하였으나 수락이 아닌 다른 의도가 드러나게 서술한 경우	1

03 ⑤

화자(승주)는 학교 계단에서 양손에 책을 들고 이동하는 상황이다.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너 시간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⑤에서 “민호야!”라고 부를 때는 성난 말투가 아닌 반가워하는 말투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4 ④

“너 시간 있어?”라는 표현은 ‘너 나를 좀 도와줄 시간적 여유가 있어?’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요청하는 의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③ 일정을 조율한다는 것은 일정을 서로 알맞게 조절한다는 뜻으로, 승주는 민호와 일정을 조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시간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05 서술형 아니, 지금 선생님이 급히 부르셔서 도와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평가 기준	배점
승주의 부탁을 거절하는 표현을 적절한 까닭과 함께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승주의 부탁을 거절하는 표현을 적절한 까닭과 함께 서술했으나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3
승주의 부탁을 거절하는 적절한 까닭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06 ⑤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 수준은 60.2%로,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고령층은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고 있다.
- ②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는 일반 국민 대비 91.7%로 높은 편이다.
- ③ 정보 취약 계층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 해당한다.
- ④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무인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했으나, 이로 인해 무인 시스템이 발명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④

기자가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한 까닭은 통계 수치를 통해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뉴스의 설득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 ②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이라는 뜻이다.
- ③ ‘원인’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뜻한다.

08 ④

㉞은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의 면담 내용이다. 키오스크 주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의 이용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층이 비대면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므로 키오스크 사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서술형** 디지털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정보 취약 계층과 일반 국민 사이에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기준	배점
디지털 정보 격차와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뉴스의 의도를 알맞게 서술한 경우	5
디지털 정보 격차 또는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서술하고 뉴스의 의도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

대단원 종합 문제

144~149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① 05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06 ② 07 ② 08 ⑤ 09 나에게는 ‘음악’인 소리가 이웃에게는 ‘소음’일 뿐이라는 문구를 통해 층간 소음을 줄이자는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10 ③ 11 ① 12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는 높지만 이용 능력은 낮음. 13 ③ 14 ⑤ 15 ② 16 ④ 17 동생이 음악을 틀고 춤추고 있는 상황에서 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숙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시끄러워서 숙제에 집중할 수 없으니 음악을 줄여 달라는 의도이다. 18 ③ 19 ③ 20 ③ 21 면담 대상자는 동물 행동을 연구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동물의 권리와 특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01 ④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시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글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편리성과 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까닭과 근거는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⑤ (나), (다)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이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사)에서는 반대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02 ②

㉠의 인공지능 기술의 선부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오답 해설

㉠, ㉡, ㉢은 인공지능의 특성과 편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㉞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03 ①

<보기>에서는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해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고 있다. ①은 글에 나타난 정보인 ‘단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보기>와 성격이 다르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⑤는 독자의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 이미 알고 있던 지식 등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해 글의 의미를 추론하고 있다.

04 ①

법적 책임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인공지능 기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①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법 분야에 도입되어 활용된다는 것은 글의 내용에서 벗어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⑤ ‘분쟁’은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이라는 뜻이다. (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일으킨 문제의 법적 책임에 대한 기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추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5 서술형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근거로 들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신중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글쓴이의 의도와 (사)에서 법적 책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찾아 알맞게 서술한 경우	5
(사)에서 법적 책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맞게 썼으나 글쓴이의 의도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
글쓴이의 의도와 (사)에서 나타난 문제를 모두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06 ②

<보기>의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점을 경계하면서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해.’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양면성을 모두 인정하는 절충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절충적: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생각 따위가 조절되어 알맞게 되는.
- 중립적: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는.

07 ②

(가)의 광고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심 화제로 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나)의 광고는 ‘층간 소음’을 중심 화제로 하여 층간 소음을 줄여야 한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가)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나)의 층간 소음은 모두 줄여야 할 문제이므로 부정적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08 ⑤

<보기>는 광고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배경지식으로 스리랑카 코끼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생명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스리랑카 코끼리의 사례를 통해 독자가 플라스틱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설득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기후 위기 문제는 이 광고와 관련이 없다.
- ②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광고에 드러나 있으나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스리랑카로 유출된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플라스틱 쓰레기로 피해를 입고 죽은 동물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으나 이것이 모든 생물의 멸종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추론할 수 없다.
- ④ 한국이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생산하고 있는지는 제시된 정보를 통해 추론할 수 없다.

09 서술형 나에게는 ‘음악’인 소리가 이웃에게는 ‘소음’일 뿐이라는 문구를 통해 층간 소음을 줄이자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언어적 표현에 담긴 의미와 광고의 의도를 모두 올바르게 추론하여 서술한 경우	5
언어적 표현에 담긴 의미는 올바르게 추론하지 못했으나 광고의 의도를 올바르게 서술한 경우	3
언어적 표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의 의도만 올바르게 서술한 경우	1

10 ③

㉠은 면담 자료, ㉡은 통계 자료이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기자의 보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은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기자의 보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구체

화하고 기자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자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①

<보기>에서는 ‘디지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장벽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장벽’이라는 말에 디지털 정보가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디지털 장벽을 낮춰 가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 극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의 ‘디지털 정보 격차’와 ‘디지털 장벽’은 모두 극복해야 할 문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2 **서술형**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는 높지만 이용 능력은 낮음.

평가 기준	배점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와 활용 역량을 관련지어 실태를 알맞게 서술한 경우	5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와 활용 역량을 관련지어 서술했으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	3

13 ③

(가)에서는 동일한 언어적 표현 “많이 불편하십니까?”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과 ㉡에서 각각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상황 맥락을 파악하여 의도를 추론해야 하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신발 가게에서 점원과 손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는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② 상황 맥락은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화자의 의도도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4 ⑤

‘이심전심’에는 수락(요청을 받아들임.)의 의도가, ‘내 코가 석자’에는 거절의 의도가 담겨 있다.

15 ②

이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들은 약속한 게임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엄마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고려할 때 엄마가 시계를 가리키

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금 몇 시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시간을 물어보거나 일정을 확인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엄마는 “지금 몇 시니?”라는 언어적 표현으로 게임을 끝내기로 약속한 시간을 상기시킴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을 혼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16 ④

(라)에서 승주가 말한 “너 시간 있어?”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로 한 표현이다. 승주의 의도를 파악하고 “응, 있어.”라고 대답한다면, 이러한 도움 요청을 수락하는 의도가 담겨야 한다. ④에서는 시간을 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대답이다.

오답 해설

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협력하여 도와주겠다는 의도를 전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17 **서술형** 동생이 음악을 틀고 춤추고 있는 상황에서 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숙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시끄러워서 숙제에 집중할 수 없으니 음악을 줄여 달라는 의도이다.

평가 기준	배점
상황 맥락과 화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파악하여 화자의 말에 담긴 의도를 올바르게 서술한 경우	5
상황 맥락 또는 화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일부만 파악하여 화자의 말에 담긴 의도를 서술한 경우	3
화자의 말에 담긴 의도만 부분적으로 서술한 경우	1

18 ③

(가)에서는 돌고래가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물이며 초음파를 감지하는 특성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돌고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쿠아리움(수족관)의 좁은 환경은 돌고래에게 적합한 환경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답변 전체로 볼 때 벨루가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특성을 설명하면서 면담 대상자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벨루가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면담 대상자는 수족관의 환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므로 아쿠아리움의 발전은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벨루가에게 정형화한 행동이나 꺾병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수족관의 좁은 수조 환경 때문이므로, 면담 대상자는 벨루가의 문제가 아쿠아리움의 환경 때문임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 ③

㉠은 동물 행동학에서 연구해 온 동물들의 특성에 따라 그들이 살아갈 환경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동물의 특성에 따라 살아갈 환경을 결정할 때는 동물의 입장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인간과 동물의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면담 대상자는 올챙이와 돌고래의 인지 능력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갇힌 것을 인식하는 동물들은 풀어 줘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동물 행동학에서 연구하는 동물의 특성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④ 이 면담의 중심 화제는 벨루가(돌고래)를 아쿠아리움에 전시하는 문제이므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돌고래의 특성에 맞게 풀어 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20 ③

㉠에서 인간의 재미와 관심을 위해 돌고래를 가두어 놓으면 안 되고, 돌고래의 입장을 고려하여 돌고래가 사는 바다로 가서 자연스럽게 관찰해야 한다는 뜻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③에서처럼 돌고래 관광을 찾아다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간의 재미와 필요에 의해 탐사를 하는 것은 면담 대상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이다.

21 **서술형** 면담 대상자는 동물 행동을 연구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동물의 권리와 특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기>에서 면담 대상자가 주장한 ‘생물 다양성 보존’은 생물의 종이 다양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 즉 생태계가 다양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돌고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다로 풀어 주라는 면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의 권리와 특성을 존중하는 면담 대상자의 가치관을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면담 대상자의 정보에서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면담 대상자가 지닌 가치관을 적절하게 추론한 경우	5
면담 대상자의 가치관을 적절하게 추론하였으나 근거에 <보기>의 정보가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은 경우	3
면담 대상자의 가치관을 미흡하게 추론하여 서술한 경우	1

3. 분류하고 활용하기

(1) 단어의 갈래

활동 응용 문제 - 이해x탐구

156~167쪽

- 1 ⑤ 2 ① 3 ② 4 ③ 5 ③ 6 ① 7 ⑤
 8 ② 9 ⑤ 10 ① 11 ① 12 ② 13 ①, ③
 14 ④ 15 ④ 16 ③ 17 ② 18 ④ 19 ① 20 ③
 21 ① 22 ③

1 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은 가변어이다. 가변어에는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다. ㉠ '샀어(사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 '민수'는 명사로 불변어이다.
 ② ㉢ '방금'은 부사로 불변어이다.
 ③ ㉣ '새'는 관형사로 불변어이다.
 ⑤ ㉤ '을'은 조사로 불변어이다.

2 ①

'정말'은 부사이며 수식언으로서 뒤에 오는 용언 '밝다'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는 ① '몹시'이다.

오답 해설

- ② '이것'은 체언(대명사)이다.
 ③ '좋다'는 용언(형용사)이다.
 ④ '국어'는 체언(명사)이다.
 ⑤ '이다'는 관계언(조사)이다.

3 ②

품사를 단어가 나타내는 공통적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와 같이 9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② '너무'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컵', ③ '나비', ④ '노동', ⑤ '목걸이'는 명사이다.

4 ③

'뛰다'는 동사이고 '아름답다'는 형용사로 둘 다 용언이다. 두 품사의 공통점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달라지는 가변어

라는 점이다.

오답 해설

- ①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형용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 수식언의 기능이다.
 ⑤ 명사의 특성이다.

5 ③

'깨끗이'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6 ①

'그'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이다. 화장실은 장소이므로 사람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는 쓸 수 없다.

오답 해설

- ② '저기', ③ '거기', ④ '여기', ⑤ '그곳'은 모두 장소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7 ⑤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수사이다. ⑤ '하나'는 떡의 수량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 ① 이 문장에서 '하나'는 사람의 이름으로 고유 명사로 쓰인 것이다.
 ② '세'는 뒤의 명사 '시'를 꾸며 주는 수 관형사이다.
 ④ '삼삼하구나(삼삼하다)'는 음식 맛이 조금 싱거운 듯하면서 맛이 있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8 ②

체언은 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여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하며 뒤에 조사가 붙는다.

오답 해설

- ① 가변어에 대한 설명이다.
 ③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속한다.
 ④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은 용언이다.
 ⑤ 체언은 의미가 아니라 기능에 따른 분류이다.

9 ⑤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이다. '사랑스럽다'는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낄 만큼 귀여운 데가 있

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오답 해설

- ① 내닫다: 동사 - 갑자기 밖이나 앞으로 힘차게 뛰어나가다.
- ② 소리치다: 동사 - 소리를 크게 지르다.
- ③ 달아나다: 동사 - 빨리 내닫다. 위험을 피하여 도망가다.
- ④ 노래하다: 동사 - 가사에 곡조를 붙여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음악을 사람이 부른다.

10 ①

단어의 기본형은 동사와 형용사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다’가 연결된 형태이다. ‘깟다’는 ‘술기운 따위가 사라지고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다.’의 의미의 ‘깨다’에 과거를 나타내는 ‘-었-’이 더해진 형태이다.

오답 해설

- ② 모르다 -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다.
- ③ 데우다 - 식었거나 찬 것을 덥게 하다.
- ④ 밝히다 - ‘밝다’의 사동사로 불빛 따위로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다.
- ⑤ 먹다 -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11 ①

‘아름다운(아름답다)’은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고, ‘큰(크다)’은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⑤의 ‘지나간다(지나가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과 같은 대상물의 주위를 지나쳐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 ‘자란다(자라다)’는 ‘생물체가 세포의 증식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점점 커지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12 ②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포함한다. ②는 체언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떡다’는 동사, ‘맛있다’는 형용사로 둘 다 용언에 해당된다.

13 ①, ③

‘헌’은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이라는 의미의 관형사로 체언인 ‘집’을 꾸며 주고 있다.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이라는 의미의 관형사로 체언인 ‘집’을 꾸며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명사이다.
- ④ 동사이다.
- ⑤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14 ④

관형사는 체언의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 ① 관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② 주로 동사를 꾸며 주는 것은 부사이다.
- ③ 관형사는 꾸미는 말 앞에서 수식한다.
- ⑤ 주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은 체언이고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15 ④

부사는 주로 용언의 앞에서 용언을 꾸며 주는 말이다. 간혹 다른 부사나 관형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경우도 있다. <보기>에서 ‘무척’은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라는 의미의 부사이며 뒤에 오는 형용사 ‘향기로웠다’를 꾸며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빛나는(빛나다)’는 ‘빛이 환하게 비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16 ③

수식언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말로 관형사와 부사가 속한다. ‘한’은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의 수 관형사로 뒤에 오는 명사 ‘장’을 꾸며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미래’는 명사이다.
- ② ‘빠졌다(빠지다)’는 ‘무엇에 정신이 쏠리어 헤어 나오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 ④ ‘알리려고(알리다)’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 ⑤ ‘밀접한(밀접하다)’는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17 ②

체언인 '지혜', '고양이', '정수', '개' 뒤에 붙은 '는' '만', '도'가 조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④, ⑤의 '고, 다'는 조사가 아니라 용언의 어간 뒤에 붙은 어미이다.

18 ④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조사는 주로 체언의 뒤에 붙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 ① 조사는 관계언에 속한다.
- ②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말은 수식언이다.
- ③ 서술격 조사 '이다'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 ⑤ 조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들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19 ①

제시된 내용은 보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①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 해설

- ② '조금'은 '정도나 분량이 적게.'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 ③ '되었다(되다)'는 동사이다.
- ④ '중학생'과 '숙제'는 명사이다.
- ⑤ '즐겁다'와 '좋다'는 형용사이다.

20 ③

③에 쓰인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이'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 ② '은'은 앞말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④ '까지'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④ '을'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21 ①

'미래야'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어서 감탄사처럼 보이지만, 고유 명사 '미래'에 호격 조사 '야'가 합쳐진 것으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감탄사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쓰인다.

오답 해설

- ② '아니'는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 ③ '와'는 '우아'의 준말로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④ '흥'은 비웃거나 아니꼬울 때 내는 콧소리로 감탄사이다.
- ⑤ '어쭙'은 남의 잘난 체하는 말이나 행동을 매우 비웃는 뜻으로 하는 감탄사이다.

22 ③

독립언은 문장 내에서 다른 말과 관련이 적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로 감탄사가 이에 속한다.

오답 해설

- ① '은, 는, 을, 를'은 조사로 관계언에 속한다.
- ② 체언을 꾸미는 말은 관형사이다. 독립언은 활용하지 않는다.
- ④ 조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⑤ 체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플러스 문법 문제

158쪽

1 ③ 2 ④ 3 ⑤

168~169쪽

1 ④ 2 ② 3 ① 4 ⑤ 5 ① 6 ④ 7 ③ 8 ⑤

158쪽

1 ③

형태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할 때 문장에서 형태가 달라지면 가변어, 달라지지 않으면 불변어이다. ③ '바다'는 명사로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불변어이다.

오답 해설

- ① '자다'는 동사로 가변어이다.
- ② '놀다'는 동사로 가변어이다.
- ④ '예쁘다'는 형용사로 가변어이다.
- ⑤ '귀엽다'는 형용사로 가변어이다.

2 ④

'우유'는 명사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 체언이라고 하는데,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인다.

오답 해설

- ① '잘'은 '익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수식언이다.
- ② '가장'은 '유명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수식언이다.
- ③ '아주'는 '빠르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수식언이다.
- ⑤ '매우'는 '뜨겁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수식언이다.

3 ⑤

'푸르다', '기쁘다', '새롭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오답 해설

- ①, ②는 수사, ③은 명사, ④는 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168~169쪽

1 ④

가변어는 형태를 기준으로 나눈 갈래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용언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 ② 체언은 문장의 몸통인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 ③ 관계언은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이다.
- ⑤ 수식언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

2 ②

체언은 문장의 몸통인 주어와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말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속한다. '개미'와 '마리'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앗'은 감탄사로 독립언이다.
- ③ '가, 도'는 조사로 관계언이다.
- ④ '한'은 관형사이고, '여기'는 대명사이다.
- ⑤ '보이다'(동사), '않다'(동사), '나타나다'(동사)는 모두 용언이다.

3 ①

'거기'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여기', '우리', '이것', '이곳'은 대명사이지만, '아주'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4 ⑤

'해결했다(해결하다)'는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솔직하다'는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 ② '영리하다'는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 ③ '시원하다'는 '답답한 마음이 풀리어 흐뭇하고 가뿐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 ④ '답답하다'는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5 ①

<보기>의 '세'는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수식언이다. ①의 '셋'은 체언으로 뒤에 조사 '이'가 붙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어느'는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관형사로 수식언이다.
- ③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로 수식언이다.
- ④ '무척'은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수식언이다.
- ⑤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이라는 의미의 관형사로 수식언이다.

6 ④

'무척'은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부사는 수식언으로 용언을 꾸며 주며 불변어이다.

오답 해설

- ① '지혜'는 명사이다.
- ② '가'는 조사이다.
- ③ '좋아하는(좋아하다)'은 동사이다.
- ⑤ '유명하다'는 형용사이다.

7 ③

'은'은 명사인 '만남' 뒤에 붙은 조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첫'은 '맨 처음의.'라는 의미의 관형사이다.
- ② '만남'은 명사이다.
- ④ '너무'는 부사이다.
- ⑤ '어려워(어렵다)'는 형용사이다.

8 ⑤

‘애’는 어른이 아이를 부르거나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의미의 감탄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어머’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내는 소리로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② ‘아이고’는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말로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③ ‘앗’은 다급하거나 놀랐을 때 지르는 외마디 소리로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④ ‘네’는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로 대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감탄사이다.

활동 응용 문제 - 적용×실천

170~173쪽

1 ⑤ 2 ② 3 ⑤ 4 ⑤ 5 ②, ⑤ 6 ①

1 ⑤

가 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설명문으로, 주로 쉽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 나 는 글쓴이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시로 함축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시어가 주로 많이 쓰인다.

2 ②

<보기>에 제시된 단어는 부사와 관형사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다. 수식언은 다른 말을 꾸며 줌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자세하거나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오답 해설

- ① 지시 대명사나 명사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부사나 관형사를 사용했을 때 문장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④ 관형사와 부사는 생략해도 문장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 ⑤ 관계언의 역할이다.

3 ⑤

‘치우다’는 ‘정리하다’라는 동사로 ‘~하자’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지런하다’는 형용사로, 청유형 표현을 쓸 수 없다. ‘선을 가지런하게 긋자’, ‘선을 가지런하게 하자’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② ‘애들아, 좀 조용히 하자.’ 등과 같이 고쳐 써야 한다.
- ③ ‘새해에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등과 같이 고쳐 써야 한다.
- ④ ‘지회는 오빠보다 더 유명하게 되어라.’ 등과 같이 고쳐 써야 한다.

4 ⑤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는 체언에 붙여 쓴다. ⑤의 ‘마저’는 ‘남김없이 모두.’라는 의미의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오답 해설

- ① ‘처럼’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 ② 이 문장에서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 ③ 이 문장에서 ‘같이’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의미의 부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 ④ 이 문장에서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5 ②, ⑤

‘성실하다’는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의 형용사다. ‘성실해라’와 같은 명령형으로 쓸 수 없으며, ‘성실하게 지내라’ 등으로 고쳐 쓸 수 있다. ②의 ‘-하세요’도 명령형에 해당하므로 잘못 쓴 표현이다. ⑤의 ‘뛰자(뛰다)’는 ‘발을 몹시 재게 움직여 빨리 나아가다.’라는 뜻의 동사이므로 형용사인 ‘성실하다’와 품사가 다르다.

오답 해설

- ③ ‘-하자’는 청유형 표현이다. 형용사인 ‘성실하다’는 청유형으로 쓸 수 없다.

6 ①

<보기>의 '잘못하다'는 '틀리거나 그릇되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다. 부사 '잘', 부사 '못', 명사나 부사 '잘못'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단어이므로 모두 붙여 쓴다.

플러스 어휘 문제 175 쪽

1 (1) 도닐며 (2) 시나브로
2 (1) 어뜨무러차 (2) 윤슬 (3) 들차다

1 (1) 도닐며 (2) 시나브로

- (1) '호수 가장자리를 빙빙 돌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는 의미로 보아야 자연스럽다. '노닐다'는 '한가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놀다.'라는 의미이다.
- (2) '사랑이 나를 천천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적셨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다. '시시껄렁하다'는 '신통한 데가 없이 하찮고 끝담잡다.'라는 의미이다.

2 (1) 어뜨무러차 (2) 윤슬 (3) 들차다

- (1) 아들을 들면서 기운을 내는 소리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 (2)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반짝이는 잔물결이므로 달밤에 비친 호수의 모습을 표현한 말로 적절하다.
- (3) 청년의 모습이 뜻이 굳세고 몸이 튼튼하다는 의미로 '들차다'가 적합하다.

소단원 핵심 정리 176~177 쪽

학습내용 핵심 **꼭!**

1 ④ 2 ④ 3 ① 4 ⑤ 5 ④ 6 ②

1 ④

형태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 변

하지 않는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첫'(관형사), '사랑'(명사), '은'(조사), '너무'(부사)는 불변어이고, '어렵다'(형용사)는 가변어이다.

2 ④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기능이 있는 단어는 수식언어로 관형사와 부사가 해당한다. <보기>에서는 '잘'이 부사이다.

오답 해설

- ① '고기'와 '눔'은 명사이다.
- ② '먹어(먹다)', '먹는다(먹다)'는 동사이다.
- ③ '본(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잘'은 부사로 수식언어에 속한다.
- ⑤ '도', '이'는 조사이다.

3 ①

<보기>는 체언에 대한 설명으로. ①의 '친구'가 체언에 속하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 ② '우아'는 감탄사로 독립언어에 속한다.
- ③ '매우'는 부사로 수식언어에 속한다.
- ④ '옛'은 관형사로 수식언어에 속한다.
- ⑤ '쓰니(쓰다)'는 동사로 용언에 속한다.

4 ⑤

⑤의 '먹지(먹다)'는 동사이다. ①의 '맛있겠다(맛있다)', ②의 '차가워(차갑다)', ③의 '푸르다', ④의 '섭섭해(섭섭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5 ④

'오는'은 어간 '오-'에 어미 '-는'이 붙어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사가 아닌 동사이다.

6 ②

'마리'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행복하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을 쓸 수 없다.
- ③ '밝다'는 형용사이며 '밝는다'와 같이 쓸 수 없다.
- ④ '조용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을 쓸 수 없다. '조용히 하자.'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 ⑤ '보다'는 조사이다. '백설 공주'라는 앞말에 붙여 '백설 공주보다'라고 써야 한다.

01 ⑤ 02 명사인 ‘사과, 배’, 조사인 ‘를, 가’가 들어간다. 03 ② 04 ④ 05 ⑤ 06 ⑤ 07 ② 08 ③ 09 ‘날아가다’의 품사는 동사, ‘예쁘다’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두 품사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10 ① 11 ③ 12 ④ 13 ④ 14 ② 15 ② 16 시에서 부사와 같은 수식언을 사용하면 대상을 더 아름답거나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17 ①

01 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로, 홀로 쓰일 수 없으며 다른 단어에 붙어서 쓰인다. ⑤는 수식언(관형사,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02 **서술형** 명사인 ‘사과, 배’, 조사인 ‘를, 가’가 들어간다.

㉠에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인 ‘사과, 를, 배, 가’가 들어간다. ‘사과, 배’는 명사, ‘를, 가’는 조사이다.

평가 기준	배점
㉠에 들어갈 모든 단어와 그 단어의 품사를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에 들어갈 단어와 그 단어의 품사를 일부만 맞게 서술한 경우	3
㉠에 들어갈 단어는 일부 썼지만 그 단어의 품사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03 ②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용언(형용사, 동사)이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먹으니(먹다)’는 동사, ‘부르다’는 형용사이다.

04 ④

<보기>의 빈칸에는 ‘맛있다’라는 형용사를 꾸며 줄 수 있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매우, 꽤, 덜’은 모두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05 ⑤

‘공원(명사), 저것(대명사), 첫째(수사)’는 체언에 속한다. ⑤의 ‘반지’ 또한 명사로 체언이다.

오답 해설

- ① ‘내렸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② ‘없는’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③ ‘날아갔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④ ‘파란’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6 ⑤

‘첫째, 셋, 다섯, 하나’는 모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 체언에 속한다. 반면 ⑤의 ‘두’는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속한다.

07 ②

‘현우와 나’는 ‘우리’라는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 ③, ④ ‘공연장’은 ‘그곳’, ‘거기’ 등의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입장권’은 ‘이것’ 등의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8 ③

‘기억해야지(기억하다)’는 동사이다. 동사는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며, 용언에 속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④ 독립언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수식언에 대한 설명이다.

09 **서술형** ‘날아가다’의 품사는 동사, ‘예쁘다’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두 품사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날아가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예쁘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여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며, 이들을 묶어 용언이라고 한다.

평가 기준	배점
‘날아가다’와 ‘예쁘다’의 품사를 모두 밝히고, 두 품사가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을 알맞게 서술한 경우	5
‘날아가다’와 ‘예쁘다’ 중 한 개의 품사만 알맞게 밝혔으며, 두 품사가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을 알맞게 서술한 경우	3
‘날아가다’와 ‘예쁘다’의 품사를 모두 밝히지 못하고, 두 품사가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만 서술한 경우	1

10 ①

‘모든’은 체언 앞에 놓여 그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빨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다.

오답 해설

- ②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에 대한 설명이다.
- ④ 감탄사와 같은 독립언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조사와 같은 관계언에 대한 설명이다.

11 ③

㉠‘한’은 ‘왕자’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하나’는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오답 해설

- ① ㉠과 ㉡은 모두 불변어이다.
- ②, ④ ㉠은 관형사로 수식언에, ㉡은 수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 ⑤ ㉠은 ‘왕자’를 꾸미고 있으나 ㉡은 수식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12 ④

‘열심히’는 용언인 ‘읽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3 ④

제시된 기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며, 그중에서도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보조사이다. ‘만’은 강아지가 좋아하는 대상은 지우 하나라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사이다.

오답 해설

- ①, ③ ‘강아지, 지우’는 명사에 해당한다.
- ② ‘가’는 조사가 맞으나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지는 않는다.
- ⑤ ‘좋아한다(좋아하다)’는 동사이다.

14 ②

‘우아’는 말하는 이의 느낌이나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인 감탄사에 속한다. ②의 ‘아’ 또한 감탄사이다.

15 ②

(가)는 설명문으로, 설명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와 설명 대상

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많이 쓰였다. (나)는 시로,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부사와 같은 수식언이 많이 쓰였다.

16 서술형 시에서 부사와 같은 수식언을 사용하면 대상을 더 아름답거나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시에서 부사나 관형사와 같은 수식언을 사용하면 대상을 더 아름답거나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하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부사’라는 품사를 밝혔으며, 시에서 부사와 같은 수식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5
‘부사’라는 품사를 밝혔으나 시에서 부사와 같은 수식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알맞게 쓰지 못한 경우	1

17 ①

‘같이’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 ② ‘만큼’은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③, ④, ⑤ ‘깨끗하다’, ‘조용하다’, ‘건강하다’는 형용사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쓸 수 없다.

(2)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쓰기

활동 응용 문제 - 과정×탐구 184~196쪽

1 ⑤ 2 ④ 3 ③ 4 ④ 5 ③ 6 (1) × (2) ①
 7 ③ 8 ③ 9 ② 10 ② 11 ③ 12 ④ 13 ①
 14 ② 15 ③ 16 ④ 17 ③, ④ 18 ⑤ 19 ①, ⑤
 20 ③ 21 ⑤ 22 ④ 23 ⑤ 24 ⑤ 25 ⑤ 26 ⑤

1 ⑤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를 계획할 때 글의 작성 시간은 고려할 점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예상 독자는 주변 친구들이다.
- ② 글이 실릴 매체는 학교 신문이다.
- ③, ④ 무색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주제로 글을 써서 환경을 지키는 법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

2 ④

글을 읽을 독자의 나이나 관심사, 지식 수준, 독자가 글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 등을 짐작하여 글쓰기를 계획한다. 독자와 자신의 친분도는 글쓰기 계획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3 ③

글쓰기 계획을 세울 때에는 독자의 수준과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므로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주제는 적절하지 않다.

4 ④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객관적인 사실을 담아야 한다. 첫 수련회에서 감동받은 이유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에 가까우므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5 ③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면 정보 검색이 쉽고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자료를 찾는 일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핵심어로 자료를 찾아야 한다. 또, 인터넷 매체에는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가 많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내용을 다루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6 (1)×(2)○

전문가나 관련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7 ③

정보 제공자를 직접 만나느라 시간이 들 수 있는 자료 조사 방법은 전문가나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면담하는 방법이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면 다양한 형식의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지만 검색하는 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핵심어를 조합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또한 신뢰도가 낮은 자료가 많으므로 그 출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8 ③

반 친구들의 실제 카페인 음료 섭취량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가 가장 적절하다.

9 ②

자료 2는 공공 기관 누리집에서 찾은 자료로, 출처가 믿을 만 하지만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선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10 ②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자료가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인지 등을 살펴 자료의 중요도를 판단한 뒤 선정해야 한다.

11 ③

<보기>에서는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개인 블로그의 글을 자료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자료의 저자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지 따져 본 것이다.

12 ④

비전문가가 쓴 블로그 글은 전문성을 갖춘 것인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출처가 믿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13 ①

강아지와 고양이의 신체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고양이를 키울 때의 유의점이라는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글의 주제와 관련성이 적은 자료는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②

그림 자료는 주로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충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 또, 독자의 흥미를 끌거나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돕는 용도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림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보의 신뢰도는 믿을 만한 저자와 출처를 통해 높일 수 있다.

오답 해설

⑤ 주제와 관련 있는 인물과 인터뷰를 하며 주제에 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5 ③

글의 짜임을 구성하여 그에 맞게 자료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16 ④

글의 개요를 작성할 때는 수집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계획한다.

오답 해설

- ① 선정된 자료는 중요도를 파악해 중요도가 떨어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글의 주요 내용만 간략히 적어 뼈대만 작성한다.
- ③ 부족한 자료는 개요를 작성하면서 추가할 수 있다.
- ⑤ 개요를 처음 작성한 이후에도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

17 ③, ④

개요에는 글의 구조, 문단의 나눔 및 문단별 주요 내용, 활용할 자료 등을 담는다.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문장의 완성도를 따지기는 어렵다.

18 ⑤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짜임에 맞게 각 부분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적절히 배치하고, 각 부분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19 ①, ⑤

윤성이는 《올바른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이라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독자들이 문제 상황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사의 내용을 활용하면서 독자들이 어려워할 만한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썼다.

오답 해설

- ③ 중간 부분에서 소제목을 붙여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 하였다.

20 ③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내용이다.

21 ⑤

글로만 설명했을 때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을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시하면 독자가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2 ④

윤성이는 이 글의 끝부분에 참고한 책과 신문, 그림의 출처를 적었고 직접 인용한 경우에는 책 이름을 제시하며 인용 부분을 큰따옴표로 표기하여 쓰기 윤리를 지켰다. 윤성이가 쓰기 윤리를 지켰음을 따로 검증 받은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3 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서 윤리적인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아니다. 많은 자료를 활용해서 쓰는 글이므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등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24 ⑤

간접 인용을 할 때와 직접 인용을 할 때 모두 참고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때는 사이트 주소를 포함한 해당 내용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②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인용하더라도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③ 글을 쓸 때 활용한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 ④ 그림이나 표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할 때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25 ⑤

다양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내용이 풍부해진다. 또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고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26 ⑤

직접 인용할 때는 간접 인용할 때와 달리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어느 부분을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 ④ 2 ① 3 ⑤ 4 ⑤ 5 ④ 6 출처

1 ④

윤성이는 포스터를 통해 무색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①

‘라벨X’라는 문구, 비닐이 페트병과 분리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어 분리배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납작한가’라는 항목 아래의 손 그림과 ‘눌러 눌러’라는 표현을 통해 페트병을 납작하게 눌러서 버려야 함을 알 수 있다.
- ③ 무색인 커피 컵과 과일 케이스 그림에 ‘X’ 표시를 하여 무색 페트병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네 가지 항목을 크게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무색 페트병을 분리배출할 때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유색X’이라는 문구로 확인할 수 있다.

3 ⑤

포스터 제목과 중앙에 배치된 네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⑤

포스터는 시각적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포스터는 글보다 공간적 제약이 크므로 핵심적인 정보 위주로 담아야 한다.
- ② 그림이나 사진은 핵심적인 것들을 사용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 ③ 포스터는 시각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표현 방식이므로 무조건 색이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조건 많은 색을 사용하면 오히려 산만하고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
- ④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목에서 드러내는 것이 좋다.

5 ④

포스터는 시각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표현 방식이므로 색상, 크기, 배치 등이 전달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목이나 문구 등이 눈에 잘 띄도록 다양한 크기와 색으로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

6 출처

포스터를 제작할 때 활용할 자료는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플러스 여취 문제

1 (1) 누출 (2) 배출 2 (1) 수탈 (2) 분류

1 (1) 누출 (2) 배출

- (1) ‘비밀이나 정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감.’이라는 의미인 ‘누출’이 적절하다.
- (2)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이라는 의미의 ‘배출’이 적절하다.

2 (1) 수탈 (2) 분류

- (1) 억지로 빼앗아 갔다는 의미가 담겨 ‘강제로 빼앗음.’이라는 의미의 ‘수탈’이 적절하다.
- (2) 종류별로 나눈다는 의미이므로 ‘종류에 따라서 가름.’이라는 의미를 가진 ‘분류’가 적절하다.

소단원 핵심 정리

학습내용 핵심 **퀴!**

1 ③ 2 ④ 3 설명문 4 ③ 5 ⑤

1 ③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조화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세부 내용을 조직한다.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개요 작성하기 단계가 아닌 자료 선정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2 ④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유형,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 매체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글에 담을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자료 수집하

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3 설명문

지식이나 대상에 관한 정보를 독자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풀어 쓴 글은 설명문이다.

4 ③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선정한 자료를 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통합하고 배치해야 한다.

5 ⑤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나 글을 가져와서 쓸 때에는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204~205쪽

- 01 ③ 02 ② 03 개요 작성하기, 글의 짜임에 맞게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정한다. / 선정한 자료의 활용 계획을 세운다. 04 ⑤ 05 글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 직접 인용한 책의 이름을 밝히고 인용한 부분을 큰따옴표로 표기했다. 06 ⑤ 07 ⑤ 08 ④

01 ③

전문가를 면담하거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은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자료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생생하고 전문적이며 자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적합한 방법이다.

02 ②

<보기>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글의 주제인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과 관련이 없다.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3 서술형 개요 작성하기, 글의 짜임에 맞게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정한다. / 선정한 자료의 활용 계획을 세운다.

평가 기준	배점
개요 작성하기 단계임을 밝히고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한 가지 알맞게 서술한 경우	5
개요 작성하기 단계임을 밝혔으나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04 ⑤

⑤의 내용은 글의 짜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개요 작성하기의 단계에서 고려할 내용이다.

05 서술형 글의 마지막 부분에 사용한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 직접 인용한 책의 이름을 밝히고 인용한 부분을 큰따옴표로 표기했다.

평가 기준	배점
이 글에서 쓰기 윤리를 지킨 부분을 두 가지 모두 찾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
이 글에서 쓰기 윤리를 지킨 부분을 한 가지만 찾아 서술한 경우	3

06 ⑤

글쓰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쉬운 단어를 사용했다.

오답 해설

- ① 4문단에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라는 책 내용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② 2문단과 3문단에서 질문을 활용하며 독자가 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7 ⑤

<보기>는 《올바른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한 포스터이므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전달할 내용 등은 비슷하다.

08 ④

다양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글을 쓰면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고, 글의 신뢰도를 높이며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용 방법을 지켜야 한다. 문단과 문단 사이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것은 자료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

다단원 종합 문제

208~213쪽

- 01 ① 02 ⑤ 03 ⑤ 04 ③ 05 ③ 06 ⑤
 07 ④ 08 ② 09 ① 10 ① 11 '옛'은 관형사,
 '잠시'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공
 통점이 있지만 관형사는 체언을,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 ⑤ 13 ③ 14 ④ 15 ⑤
 16 ③ 17 조사, 부사 18 깨끗하자, 형용사는 '~하자'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19 ③ 20 ③
 21 자료 2,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
 문이다. 22 ④ 23 ④ 24 ③ 25 중간 26 ①
 27 ⑤ 28 ③ 29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자료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01 ①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장에
 서 형태가 변하는지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또,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단어가 나타내는 공통적 의
 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
 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02 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은 용언(동사, 형용사)이
 며, 용언 중에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
 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은 ㉔ '유명하다'
 이다.

오답 해설

- ① '그'는 명사인 '배우'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② '배우'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③ '는'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 ④ '꽤'는 용언인 '유명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03 ⑤

'그'는 관형사이고, '꽤'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문
 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수식언이다.

오답 해설

- ① 관계언인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 ②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불변어이다. 가변어는 용언인 동사
 와 형용사가 있다.
- ③ 독립언에 대한 설명이다.

④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체언(명사, 대
 명사,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04 ③

'배우'와 '유관순', '복도', '바다'는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
 는 명사이다. '걷다'는 동사, '그래'와 '아이고'는 감탄사이다.

05 ③

㉔의 '꽤'는 부사이다. 부사에 해당하는 것은 ③의 '어서'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사진'과 '책'은 명사이다.
- ④ '모든'은 관형사이다.
- ⑤ '상쾌해진다(상쾌하다)'는 형용사이다.

06 ⑤

'가을', '현수', '극장', '학교'는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그'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이
 다. 명사와 대명사, 수사는 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
 로 쓰여 체언이라고 한다.

07 ④

수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학생 둘이 서 있었다.'에서는 '둘'이 수사이고, '첫째, 감자를
 까고, 둘째, 감자를 썰고, 셋째, 감자를 볶는다.'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가 수사이다. '하나도 모르겠니? 한 개는 풀었니?'
 에서는 '하나'가 수사이다. '한'은 수사가 아니라 뒤의 명사
 '개'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08 ②

<보기>의 '말을게요(말다)', '쓰겠습니다(쓰다)'는 동사, '맛있
 는(맛있다)'는 형용사이다. 두 품사는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주로 서술어로 쓰이므로 이 둘을 묶어 용언이
 라고 한다.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
 용'이라고 하는데, 활용의 기본이 되는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한다. 동사, 형용사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인 형태가 기본형이다.

오답 해설

- ① 체언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동사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 ④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로 쓰이는 것은 체언이다.
- ⑤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에 대한 설명이다.

09 ①

‘빠르고(빠르다)’는 동사가 아니라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10 ①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여 몸통의 역할을 하는 단어를 체언이라고 한다.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모든’은 체언 ‘학생’을, ‘흰’은 체언 ‘옷’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1 **서술형** ‘옛’은 관형사, ‘잠시’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공통점이 있지만 관형사는 체언을,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옛’과 ‘잠시’의 품사를 모두 밝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알맞게 서술한 경우	5
‘옛’과 ‘잠시’의 품사를 모두 밝혔으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3
‘옛’과 ‘잠시’의 품사를 모두 밝혔으나, 공통점과 차이점은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12 ⑤

‘고향에서 편지가 왔다.’의 ‘에서’와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다.’의 ‘을’, ‘내 취미는 피아노 연주이다.’의 ‘이다’, ‘무엇이 너의 눈에 콩깍지를 씌웠니?’의 ‘에’는 모두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이 사람은 어제 학교에서 마주친 사람이다.’의 ‘이’는 체언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3 ③

‘나는 중학생이고, 동생은 초등학생이다.’에서 조사는 ‘는’, ‘이고’, ‘은’, ‘이다’로 총 4개이다. ‘이다’는 앞의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언을 문장의 서술어로 만들어 주는 서술격 조사이고, ‘이고’처럼 문장에서 형태가 변할 수 있다. ‘는’과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4 ④

‘어머니’, ‘아차’, ‘야’는 모두 말하는 이의 느낌이나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아픔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쓰이지 않았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

으로 쓰이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15 ⑤

‘나(대명사)는(조사) 현규(명사)와(조사) 옥수수(명사) 하나(수사)를(조사) 나누어(동사) 먹었다(동사). 그것(대명사)은(조사) 정말(부사) 맛있었다(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제시된 문장에서 관형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16 ③

‘치위’와 ‘치우자’의 기본형은 ‘치우다’로 동사이다. 동사는 명령형, 청유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낮추다’ 또한 동사이므로 명령형, 청유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낮다’, ‘놀랍다’, ‘기쁘다’, ‘포근하다’는 모두 명령형, 청유형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형용사이다.

17 조사, 부사

‘깃털같이 가볍다!’에서 ‘같이’는 조사이다. 조사는 체언에 붙여 써야 한다. ‘서로 같이 기대어 잠들었다.’의 ‘같이’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뜻의 부사이다. 조사 이외의 품사는 기본적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18 **서술형** 깨끗하자, 형용사는 ‘~하자’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배점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
잘못된 부분을 찾아 썼으나 그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
잘못된 부분을 찾아 썼으나 그 이유를 쓰지 못한 경우	1

19 ③

(가)는 글쓰기 단계 중 계획하기 단계이다. 어떤 자료를 선정한 것인지 정하는 것은 자료 선정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20 ③

자료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매체에서 다양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다.

21 **서술형** 자료 2,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가)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무색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쓸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료

2는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평가기준	배점
자료 2를 쓰고, 자료 2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 서술한 경우	5
자료 2를 썼으나 자료 2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22 ④

개인 블로그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자료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23 ④

처음, 중간, 끝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무색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개요임을 알 수 있다.

24 ③

중간의 중심 내용 ①의 아래를 보면 ‘색을 기준으로 분리’, ‘재질을 기준으로 분리’와 같은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다른 플라스틱 속에서 무색 페트병을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25 중간

중간의 중심 내용 ②에서 무색 페트병을 배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활용할 자료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6 ①

(가)에서는 무색 페트병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되지 않은 사진과 재활용된 무색 페트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신문기사의 내용을 활용하여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7 ⑤

(다)의 내용을 보면 오염 물질이 남아 있는 무색 페트병을 버리면 다른 페트병도 못 쓰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용물이 남지 않도록 잘 씻고 라벨을 떼서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

28 ③

이 글에서 플라스틱 외에 재활용할 수 있는 다른 물건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라)에서 책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가)에서 무색 페트병이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사진을 제시하였다.

④ (다)에서 무색 페트병을 배출하는 순서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⑤ (나)에서 무색 페트병 재활용 마크를 함께 제시하였다.

29 **서술형**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자료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평가기준	배점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조건>을 지켜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썼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4. 성장하고 변화하고

(1) 문학과 성장



확인 문제

220~226쪽

1 ①, ⑤ 2 ① 3 ④ 4 ① 5 ① 6 ③ 7 폭폭
8 ① 9 ⑤ 10 ④ 11 ④ 12 ③

1 ①, ⑤

아빠는 시장에서 닭집을 운영하며, 별명은 ‘닭대가리’이다. 아빠의 별명은 가게 이름인 ‘대거리 닭집’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② 아빠는 사람들이 별명을 부르는 것에 관해 좋다고 하였다.
- ③ 사람들이 아빠의 별명을 불러서 아빠가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이 아빠의 별명을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였다.
- ④ 아빠는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면 가게에 헛소문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을 의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빠는 ‘백’이라는 성은 남들보다 쓰기 어렵지만 이름을 한 글자로 지으면 ‘나’가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나’의 이름을 ‘석’이라 지었다.

3 ④

‘회의적’은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선생님은 ‘나’의 이름을 멋진 이름이라고 하며 칭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⑤ ‘회의적’은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것을 의미한다.

4 ①

“시인 백석이 누구야?”, ‘아빠는 눈을 깜빡거렸다. 시인 백석을 모르는 게 분명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아빠는 ‘백석’이라는 시인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①

언제나 통닭을 먹을 수 있어서 아빠가 닭집을 하는 것이 좋다는 ‘나’의 모습을 통해 평소 통닭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닭을 주자 걱정을 잊고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 ‘나’가 순수한 아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6 ③

아빠는 백석의 시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므로 ‘나타샤’라는 이름만 보고 미국 여자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백석이라는 시인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진이나 인물평을 보고 신기해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와 아빠는 시의 ‘내린다’라는 표현을 보고 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 백석 시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 ② 아빠는 배경지식이 없음에도 최선을 다해 ‘나’에게 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④ ‘나’ 역시 시의 내용을 몰라서 아빠에게 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⑤ 아빠가 “무슨 천재 시인이 ‘내린다’도 모르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시인이 의도적으로 쓴 표현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7 폭폭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는 ‘폭폭’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폭폭’은 눈 따위가 많이 내려 수북하게 쌓이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다.

8 ①

인물의 성격은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건어물집 아저씨는 아빠가 소련이 러시아로 이름이 바뀐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빠를 무시하고 놀린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9 ⑤

아빠는 건어물집 아저씨가 ‘닭대가리’라고 놀려도 평소와 다르게 대답도 하지 않고 얼굴이 발강게 달아오르며, 말없이 다만 자른다. 아들 앞에서 소련과 러시아를 구별하지 못해 놀림을 당한 것이 창피하고, 속상하며,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워 의기소침한 아빠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 ④

아직 어린 ‘나’는 자식 앞에서 망신을 당해 의기소침해하는 아빠를 적극적으로 위로할 방법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게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 ④

아빠는 ‘나’에게 나라의 이름이 바뀔 때는 잘 알아 두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똑똑한 친구를 한 명은 꼭 사귀고,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 잘 알아보라고 당부하고 있다.

12 ③

‘나’는 아빠를 보며 환하게 웃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접한 아빠의 의기소침한 모습에 당황하고 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아직 어려서 선뜻 아빠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보여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활동 응용 문제 - 감상×탐구

228~230쪽

- 1 ① 2 ⑤ 3 ③

1 ①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닭대가리’라는 별명으로 불러도 병긋 웃으며 너그럽게 받아 주는 사람이다.

오답 해설

- ② 아빠는 좋은 닭과 좋은 달걀을 팔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 ③ 아빠는 아들이 남들에게 집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 ④ 아빠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시골 할머니 집도 지어 드리고, 집에 금덩어리도 있다.
- ⑤ 아빠는 시장 사람들이 자신을 닭대가리라고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 덕에 자신의 가게에 대한 헛소문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좋게 생각한다.

2 ⑤

언제나 자식 앞에서 당당한 모습만 보여 주는 자랑스러운 아빠였지만, ‘나’는 시 읽기 사건을 통해 아빠의 부족한 모습을 알게 되고, 남에게 놀림을 당해 의기소침한 아빠의 모습을 보며 많이 당황하고 놀라게 되었다.

3 ③

‘성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반응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을 성숙한 모습으로 바꿔 나가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활동 응용 문제 - 적용×실천

231~235쪽

- 1 ④ 2 풀 부이 3 ② 4 ③ 5 ② 6 ④ 7 ② 8 ④

1 ④

제희는 허리가 아파서 물리 치료를 받다가 물리 치료사 선생님의 제안으로 수영을 배우게 되었다.

2 풀 부이

#5에서 제희는 수영이 건네준 땅콩 모양의 풀 부이를 사용하고 있다. #3에서 제희는 큰 키크판을 사용했지만 #5에서는 수영이 제안한 훨씬 작은 풀 부이로 바뀌어서 연습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는 아무런 보조 도구 없이 혼자 힘으로 수영장 끝까지 도착한다.

3 ②

물이 정직하다는 것은 노력한 만큼 결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매일매일 수영을 하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늘 수 있다는 말이다.

4 ③

수영은 제희처럼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 다녔고 그때는 수영하는 걸 싫어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되는 것들과 달리 수영은 매일 연습하면 조금씩 늘 수 있다며 제희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5 ②

제희는 처음에는 풀 부이를 잡고 수영했지만, 옆 레인에 지나가는 수영을 따라잡으려고 풀 부이를 내팽개친 채 혼자 힘으로 수영하여 반대편에 도착하였다. 제희가 수영이 옆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은 실제 수영이 수영했던 것이 아니라, 수영을 떠올리며 스스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제희의 의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6 ④

수영은 제희가 수영하는 동안 칭찬과 격려를 하며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7 ②

#5와 #6에서 제희는 아직 물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이다.

8 ④

이 글은 영화 대본인 시나리오로, 주인공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극복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은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독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 플러스 어휘 문제 237쪽

1 (1) 단번 (2) 손아귀 2 ⑤

1 (1) 단번 (2) 손아귀

- (1) 도전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의미로 문장이 완성되어야 하므로 '단번'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2) 팔이 아플 정도로 손에 힘을 주고 악수를 했다는 의미로 문장이 완성되어야 하므로 '손아귀'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⑤

동생이 나의 서툰 수영 실력을 놀렸다고 했으므로 '남의 재주나 능력 따위를 실제보다 낮추어 보아 하찮게 대하다.'라는 뜻의 '얕잡다'와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우러러보다'는 '마음속으로 공경하여 떠받들다.'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 ① '낮잡다'는 '사람을 만만히 여기고 함부로 낮추어 대하다.'라는 뜻이다.
- ② '얕보다'는 '실제보다 낮추어 깔보다.'라는 뜻이다.
- ⑤ '업신여기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238~239쪽

학습제재 정리 **꼭!**
1인칭, 성장, 시, 시집, 닭

학습내용 핵심 **꼭!**
1 ①, ④ 2 ① 3 ①

1 ①, ④

'나'는 시 읽기 사건을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아빠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빠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점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⑤ '나'는 시 읽기 사건을 겪기 전에 이미 아빠를 용머리처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 ①

아빠와 건어물집 아저씨의 대화에서 아저씨의 놀림과 핀잔으로 아빠가 시무룩해짐으로써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3 ①

<내 이름은 백석>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240~243쪽

01 ② 02 ③ 03 용머리 04 ② 05 ④, ⑤
06 ④ 07 ⑤ 08 '나'는 자신의 이름만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아서 창피함을 느꼈다. 09 ⑤ 10 ③ 11 ⑤
12 아빠가 닭집을 하면 언제나 통닭을 먹을 수 있다며 좋아한 것으로 보아 '나'는 천진난만한 성격이다. / 순진한 성격이다. / 순수한 성격이다. 13 ⑤ 14 ② 15 ③ 16 ④
17 자신의 무지가 부끄러워서 무식한 사람을 얕잡아 보는 말인 '닭대가리'를 웃으며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01 ②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며 자신의 심리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오답 해설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02 ③

(다)에서 아빠는 ‘나’가 태어나던 해부터 ‘대거리 닭집’을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시골 할머니 집도 지어 드렸다고 했다.

03 용머리

‘나’는 시장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인 ‘닭대거리’와 다르게 아빠를 ‘용머리’ 같다고 여긴다. ‘용머리’는 성실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아빠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이다.

04 ②

‘대거리 닭집’이 좋은 달걀과 좋은 닭을 팔기로 유명하고, 좋은 기름을 써서 맛있게 통닭을 만드는 걸로도 소문이 난 점에서 아빠의 정직한 성격을 알 수 있다. 또한 닭집을 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시골 할머니 집도 지어 드린 것으로 보아 매우 성실한 성격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아빠가 활기차고 명량한 성격을 지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으나 (다)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05 ④, ⑤

아빠는 사람들이 자신을 닭대거리라고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닭대거리라는 별명 덕분에 장사가 잘되는 자신을 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닭대거리라는 별명을 좋아한다.

06 ④

‘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에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아서 창피함을 느꼈다가, 천재 시인과 이름이 같다는 것을 알고는 기분이 이상해졌다.

07 ⑤

아빠는 ‘백’이라는 성이 ‘이’ 씨에 비해 쓰기 어려우니, 이름이 한 글자이면 쓰기 쉽겠다고 생각해서 ‘나’의 이름을 한 글자로 지었다.

08 서술형 ‘나’는 자신의 이름만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아서

창피함을 느꼈다.

‘나’는 2학년 때 아빠가 얘기해 준 대로 이름의 뜻을 발표했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웃자 자신의 이름만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아서 창피함을 느꼈다.

평가 기준	배점
‘자신의 이름만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아서’라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밝혀 서술한 경우	5
‘자신의 이름만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아서’라는 의미로 썼으나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자신의 이름만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아서’라는 까닭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서술한 경우	1

09 ⑤

‘나’는 선생님한테 ‘머리 쓰다듬’을 받으며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이상했다.

10 ③

선생님이 백석 시 읽는 것을 시켰는데, 자신이 아는 시가 없어서 실망하실까 봐 걱정하는 인물은 ‘나’이다. 그런 ‘나’의 걱정을 들은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외우지 뭐.”라고 대답했다.

11 ⑤

아빠는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와 시인 백석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식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에 시의 내용을 나름대로 추론하면서 화자의 처지와 정서에 관해 해설해 보고 있다.

12 서술형 아빠가 닭집을 하면 언제나 통닭을 먹을 수 있다며 좋아한 것으로 보아 ‘나’는 천진난만한 성격이다. / 순진한 성격이다. / 순수한 성격이다.

선생님이 백석 시 읽기를 시킬까 봐 걱정하면서도 통닭을 먹으며 기분이 좋아진 ‘나’의 모습에서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단서를 포함하여 ‘나’의 성격(천진난만, 순진, 순수 등)을 정확히 쓰고,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나’의 성격(천진난만, 순진, 순수 등)을 유사하게 쓰고,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3
‘나’의 성격(천진난만, 순진, 순수 등)을 유사하게 쓰고, <조건>에 맞지 않게 서술한 경우	1

13 ⑤

아빠는 백석의 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의 의미를 궁금해 하는 ‘나’를 위해 시구의 의미를 골똘히 생각해 보려고 시집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14 ②

‘나’가 창피를 당한 아빠의 의기소침한 모습에 속상하고, 마음이 복잡했던 것이지 아빠를 부끄러워한 것은 아니다. 소련과 러시아를 구별하지 못해 아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자신의 무지함을 아빠가 부끄러워한 것이다.

15 ③

‘나’는 소련과 러시아에 관해 알지 못하여 망신을 당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빠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빠가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아빠에 대한 자부심을 새롭게 확인했다. 따라서 아빠처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6 ④

건어물집 아저씨는 소련과 러시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빠를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아빠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건어물집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7 서술형 자신의 무지가 부끄러워서 무식한 사람을 알잡아 보는 말인 ‘닭대가리’를 웃으며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평소 시장 아저씨들이 “어이, 닭대가리.” 하고 부르며 “꼬끼오.” 하고 병긋 웃는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아빠는 건어물집 아저씨에게 놀림을 당할 때는 “꼬끼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이 발강게 달아올랐다. 아빠가 소련과 러시아에 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을 알잡아 보는 말인 ‘닭대가리’를 웃으며 넘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아빠가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아빠의 상황과 마음을 포함하여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아빠의 상황과 마음 중 한 가지만 분명하게 제시하여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3
아빠의 상황과 마음 둘 다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

(2) 생활 속의 다양한 매체

활동 응용 문제 - 과정×탐구

248~255 쪽

- 1 ⑤ 2 ⑤ 3 ④ 4 개인 인터넷 방송 5 대중 매체
- 6 ⑤ 7 ②, ④ 8 ④ 9 ② 10 ③ 11 ②
- 12 ④ 13 ③

1 ⑤

대중 매체의 방송은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제작된다. 또한 대중 매체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2 ⑤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이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에서는 한 사람만 등장해서 진행과 촬영, 그리고 편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 ④

대중 매체의 소재로는 많은 사람이 두루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거나, 공적이거나 공익적인 내용이 적절하다.

4 개인 인터넷 방송

개인의 취미를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소재로 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5 대중 매체

대중 매체는 내용과 표현에서 방송법과 사회 규범의 제약을 받으므로 상호명을 직접적으로 노출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많다.

6 ⑤

대중 매체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해 내용과 표현에서 방송법과 사회 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 매체보다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7 ②, ④

대중 매체는 실시간 소통이 어려워 주로 수용자가 별도의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며, 정보가 전달되는 방

식도 일방향이이다.

8 ④

대중 매체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을 전달한다. 우리 반 장기 자랑 우승자는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9 ②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재난 방송을 제공한다.

10 ③

대중 매체가 수용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안전이나 공익과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오답 해설

㉠ 대중 매체가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 대중 매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루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대중 매체를 통해 우리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1 ②

대중 매체는 접근성이 좋고 전송 범위가 넓어 수용자가 많고 영향을 미치는 대상도 많다. 즉, 대중 매체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법률과 각종 제도로 관리되고 있고,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12 ④

비싼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생겼다는 것은 과소비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순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보기 쉽고 내용도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그리고 대중 매체에 비해 내용 및 표현의 제약이 적으므로 민감한 문제들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또한 방송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기 쉽다.

13 ③

개인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때는 정보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등을 검토하며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사회 질서와 통념을 벗어난 내용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1 ① 2 ① 3 ⑤ 4 ⑤ 5 ⑤

1 ①

㉠은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적게 받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2 ①

대중 매체는 대중의 관심사를 고려한 소재를 주로 다룬다.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소재를 주로 다루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3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의 필요나 흥미와 관련 있는 정보를 쉽게 얻거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취향, 가치관, 관심사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설명이다.

③ 개인 인터넷 방송을 즐겨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4 ⑤

출처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배포해서는 안 된다.

5 ⑤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유명인이 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다.

플러스 여취 문제

1 ④ 2 ②

1 ④

‘사적(개인에 관계된), 개인적, 비공식적(사사로운)’은 비슷한 말이다. ‘보편적’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이라는 뜻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2 ②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는 ‘수용’이다. ‘교환’은 ‘서로 바꿈.’ ‘수집’은 ‘거두어 모음.’, ‘배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포기’는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 두어 버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단원 핵심 정리 262~263쪽

학습 내용 핵심 **꼭!**

1 ⑤ 2 ⑤ 3 ② 4 ④

1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과 규범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상호명 노출이나 언어 표현, 방송 소재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최근 들어 개인 인터넷 방송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여 부작용을 막으려 하고 있다.

2 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 매체의 기능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대중 매체의 기능에는 ② 사회화 기능, ③ 사회적 조정 기능, ④ 오락 및 휴식 제공 기능 등이 있으며, ①은 대중 매체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3 ②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문화를 즐기면서 공감하게 하는 것은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소재를 주로 다룬다.

오답 해설

- ①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소재를 주로 다루므로 개인의 필요나 흥미와 관련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③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 매체에서 다루지 않아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만들기도 한다.
- ④ 개인에 따라 즐겨 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을 받아 소비 생활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비전문가가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고, 허위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

도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4 ④

매체를 이용할 때는 방송 내용의 정확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판단하며 시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매체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무비판적, 무분별한 수용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소단원 핵심 문제 264~265쪽

1 ② 2 (가)에서는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여러 역할을 많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분담하지만 (나)에서는 여러 역할을 개인이 담당한다. 3 ⑤ 4 ③ 5 ① 6 ② 7 ② 8 대중 매체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사회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①

01 ②

(가)에 나타난 매체는 대중 매체이다. 대중 매체는 많은 전문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 제작된다. 비전문가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매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02 서술형 (가)에서는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여러 역할을 많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분담하지만 (나)에서는 여러 역할을 개인이 담당한다.

평가 기준	배점
방송 제작에 필요한 역할을 포함하여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생산자의 역할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조건>에 제시된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방송 제작에 필요한 역할을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제시된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생산자의 역할을 미흡하게 서술하고, <조건>에 제시된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03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생산자가 되어 여러 역할을 전담하여 제작하며, 주로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소재를 다룬다. 또한 수용자가 생산자와 소통하거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특성이 있다.

오답 해설

(가)는 전문가 집단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제작하는 대중 매체의 제작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다)는 대중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방송 소재를 선정하는 대중 매체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04 ③

(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해당한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생산자는 소재를 정할 때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와 관련된 소재인지를 고려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대중 매체에서 소재를 정할 때 고려할 점에 해당한다.

05 ①

(마)에서는 실시간 댓글을 통해 수용자가 생산자에게 질문을 하고 생산자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는 수용자가 생산자와 실시간에 가깝게 소통하면서 매체 내용의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대중 매체의 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③ 개인 인터넷 방송이 실시간으로 진행될 경우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생산자는 수용자의 의견을 매체의 내용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기도 하고, 수정이나 재생산 과정에서 반영하기도 한다.
- ⑤ 대중 매체의 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06 ②

(가)는 대중 매체, (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대중 매체의 방송에서는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대중 매체에서는 상호명을 직접적으로 노출할 수 없다.
- ③, ⑤ 대중 매체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제 때문에 표현에 제약이 심한 편이다.
- ④ 대중 매체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표현을 정해 두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07 ②

(다)는 대중 매체의 정보 제공 기능을 표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대중 매체는 안전이나 공익과 관련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답 해설

- ① 수용자가 개별적인 매체 이용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 ③ 개인 인터넷 방송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 ④, ⑤ 대중 매체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고, (다)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08 서술형 대중 매체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사회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지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중 매체가 재난 보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대중 매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대중 매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조건>에 제시한 문장의 형식에 맞지 않게 서술한 경우	3
대중 매체가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까닭을 미흡하게 서술하고, <조건>에 제시한 문장의 형식에 맞지 않게 서술한 경우	1

09 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정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과장하거나 왜곡한 정보는 아닌지, 출처가 정확한 정보인지 따져 보며 항상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대단원 종합 문제 269~276 쪽

1 ③ 2 ⑤ 3 ② 4 '나'는 기분이 이상했다. 자신의 이름이 천재 시인의 이름과 같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5 ③ 6 '나'는 선생님이 백석 시를 외우게 할까 봐 두려워하고(걱정하고) 있다. 7 ③ 8 ④ 9 ⑤ 10 ② 11 ⑤ 12 ③ 13 ②, ④ 14 아빠가 자신을 무시하는 건어물집 아저씨의 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다만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속상했을 것이다. 15 ② 16 ③ 17 ⑤ 18 ⑤ 19 ② 20 ③ 21 ⑤ 22 ⑤ 23 ⑤ 24 ② 25 ④ 26 (가)는 수용자와 생산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반면 (나)는 수용자가 생산자와 실시간에 가깝게 소통할 수 있다. 27 ⑤ 28 ③ 29 ③, ④

01 ③

아빠는 사람들이 자신을 ‘닭대가리’라고 불러도 웃으며 반응하고, 자신의 별명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닭대가리’라고 불러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한다.

02 ⑤

‘나’는 자신의 이름이 천재 시인의 이름과 같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통 구별이 가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자부심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나’가 아빠를 ‘닭대가리’가 아니라 ‘용머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아빠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② 시장 아저씨들이 짓궂게 부르는 별명에도 웃으며 반응하는 모습에서 아빠의 너그러운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③ 자식이 이름을 쓸 때 고생하지 않도록 쓰기 쉽게 한 글자로 지은 것으로 보아 ‘나’에 대한 아빠의 사랑을 알 수 있다.
- ④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시인 백석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도 아빠에게 백석을 좋아한다고 전해 달라는 말에는 ‘나’의 아빠도 시인 백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석’이라고 지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03 ②

㉠, ㉡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를 가리키고, ㉢, ㉣, ㉤은 시인 백석을 가리킨다.

04 **서술형** ‘나’는 기분이 이상했다. 자신의 이름이 천재 시인의 이름과 같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배점
‘나’의 심리를 그 까닭과 함께 알맞게 쓰고, <조건>에 제시된 문장의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나’의 심리를 그 까닭과 함께 알맞게 썼으나 <조건>에 제시된 문장의 형식에 맞지 않게 서술한 경우	3
‘나’의 심리를 알맞게 썼으나 그 까닭을 쓰지 못한 경우	1

05 ③

(가)와 (나)에서 아빠는 ‘나’에게 선생님의 말을 전해 듣고 시를 외우면 되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06 **서술형** ‘나’는 선생님이 백석 시를 외우게 할까 봐 두려워하고(걱정하고) 있다.

‘나’는 선생님이 백석의 시를 외워 보라고 할까 봐 걱정하고, 아빠는 이런 ‘나’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백석의 시를 함께 읽어 보기로 한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걱정하고 있는 ‘나’의 심리와 그러한 심리의 배경을 모두 포함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걱정하고 있는 ‘나’의 심리와 그러한 심리의 배경을 모두 썼으나 제시된 문장의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걱정하고 있는 ‘나’의 심리를 알맞게 썼으나 그러한 심리의 배경을 서술하지 못하고, 제시된 문장의 형식에 맞지 않게 서술한 경우	1

07 ③

선생님이 시 읽기를 시킬까 봐 걱정하다가도 아빠가 통닭을 건네자 아빠가 닭집을 해서 언제나 통닭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나’의 천진난만한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다)에서 ‘나’가 큰거리 책방에서 백석 시집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다)에서 아빠가 바지에 물기를 한 번 닦고 책장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넘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④ (다)에서 ‘나’와 아빠가 시집의 백석 사진을 보며 잘생겼다고 말하고, 시인 백석이 마음에 들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흐뭇한 표정을 지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나)에서 아빠는 시를 외우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시집을 사 오라고 ‘나’에게 만 원짜리 한 장과 통닭 한 쪽을 주었다.

08 ④

이 글의 ‘나’는 아빠에게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등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아빠가 닭집을 하여 언제든지 통닭을 먹을 수 있다며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얼굴이 멋지다며 시인 백석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러나 아빠가 시인 백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실망했다고 짐작할 만한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9 ⑤

(가)에서 아빠는 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 시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적 표현을 오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적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추론하면서 화자의 처지와 정서에 관해 해설하려는 모습에서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아빠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빠의 모습을 ‘나’가 답답해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10 ②

(가)와 (나)에서 아빠는 시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타샤가 미국 여자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엄마가 소련 여자라고 우겨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에서는 소련과 러시아에 관해 잘 알지 못해 건어물집 아저씨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11 ⑤

아빠는 선생님이 시 읽기를 시킬까 봐 걱정하는 ‘나’를 위해 함께 백석의 시를 낭송한 것이다. 따라서 ‘시 읽기’라는 소재는 ‘나’를 향한 아빠의 애정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오답 해설

③ ‘나’는 시집 표지의 백석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는 계기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12 ③

(다)는 소련과 러시아에 관해 잘 알지 못해 망신을 당하고 낙담한 아빠를 지켜보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3 ②, ④

건어물집 아저씨는 소련과 러시아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아빠를 비웃고 있다. 특히 “그러게 닭이나 치지, 왜 나타샤를 찾아.”라는 말은 아빠의 직업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담긴 말로, 아빠가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평소처럼 ‘닭대가리’라는 별명을 부르는 소리에 웃으며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14 **서술형** 아빠가 자신을 무시하는 건어물집 아저씨의 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닭만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속상했을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아빠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휘를 알맞게 사용하여 완전한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휘를 알맞게 사용하였으나 아빠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미흡하게 경우	3
아빠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 서술하지 못하였고 ‘나’의 마음만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1

15 ②

이 글은 초등학교생인 ‘나’가 아빠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쓴 소설이다.

오답 해설

① (나)에 ‘나’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③, ④ ‘나’가 아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내적 갈등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⑤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가 아빠와 있었던 일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16 ③

아빠는 시인 백석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단지 ‘나’가 이름을 쓸 때 고생하지 않도록 쓰기 쉽게 한 글자로 ‘석’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다. 또, 백석이 천재 시인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빠가 ‘나’의 이름을 ‘백석’이라고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점점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아빠의 모습을 본 ‘나’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터벅터벅 가게를 걸어 나가는 행동을 통해 ‘나’의 좌절감을 짐작할 수 있다.

①, ④, ⑤ 아빠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며,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하면서도 ‘나’는 자신처럼 망신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똑똑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한 것이다.

17 ⑤

(가)에서 아빠는 백석의 시와 소련, 러시아에 대해 잘 몰라서 의기소침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에서 ‘나’에게 닭에 관한 전문 지식을 설명할 때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

18 ⑤

㉠에서 ‘나’는 닭 모가지를 쥐고 흔드는 아빠의 모습이 닭집

을 채울 정도로 크다고 생각한다. 비록 지식이 얇다고 무시를 당했지만 자신의 일에는 자부심을 느끼는 아빠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으로, '나'는 아빠의 '용머리' 같은 자랑스러운 모습을 재확인한다.

19 ②

'나'는 자신에게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려는 아빠의 의도를 생각해서 아빠를 응원하고 싶은 생각에, 환하게 웃으며 시집을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20 ③

이 글에서 제희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기억 때문에 수영하기를 두려워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21 ⑤

(나)에서 제희는 수영을 연습하며 수영 실력을 키워 가지만 여전히 혼자 힘으로 수영하기를 망설이며 수영에게 의지하고 있다.

22 ⑤

제희가 혼자서 수영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영의 도움과 제희 스스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한 덕분이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항상 경계하는 태도를 지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감상은 옳지 않다.

23 ⑤

<보기>는 '나'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 역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혼자 수영장 반대편까지 수영할 수 있게 된 제희의 성장을 상징한다.

24 ②

이 글은 주인공의 내적, 외적 성장을 다룬 시나리오로, 글을 읽으며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준다.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논설문처럼 설득을 목적으로 한 글이다.

25 ④

(가)는 대중 매체의 제작 방식을 표현한 그림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피자를 맛있게 먹는 영상은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제

작하기에 적절한 소재이다.

26 서술형 (가)는 수용자와 생산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반면 (나)는 수용자가 생산자와 실시간에 가깝게 소통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생산자'와 '수용자', '실시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생산자'와 '수용자', '실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서술하였으나 <조건>의 문장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3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미흡하게 서술하고, 문장 형식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1

27 ⑤

(다)에서는 우리나라 배우가 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대중 매체의 정보 제공 기능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대중 매체의 사회화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대중 매체의 사회적 조정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 ④ 대중 매체의 오락 및 휴식 제공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28 ③

(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피해 사례에 관한 글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9 ③, ④

(마)에서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얻기가 쉽고, 일반 개인이 쉽게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메모

A series of horizontal white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pink rounded rectangle with a dashed border.

